

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27回平昌郡議會

第 3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日 時 : 1994年 11月 18日(木) 10時04分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1. 郡政에關한 質問의件

附議된 案件

1. 郡政에關한 質問의件 (繼續) ————— 1면

(10時04分 開議)

○ 議長 韓榮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평창군의회의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네분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郡政에關한 質問의件 (繼續)

(10時05分)

○ 議長 韓榮一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주태원의원, 김낙운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실과 소장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답변을 듣고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한 다음, 끝으로 군수님의 종합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태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朱泰元 議員 : 주태원 의원입니다.

먼저 봉평도읍정비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번째, 봉평시가지 도읍정비는 금년까지 2년차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본군의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에 따라서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년에 걸쳐서 금년 '94년도에 마무리 할려고 했던 사업인데 당초계획보다 모든 사업이 지연이 됴므로해서 결과적으로 1년차를 연장 해서 내년에 마무리 할려고 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마무리 할려고 해도 약20억의 예산이 필요로 하는데, 95년도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과연 이예산이 확보가 될 것이냐는 우려가 되어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여 달라는 것으로 질문을 합니다.

다음으로 도읍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용지보상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선에 그어져서 도로

로 편입되는 용지를 분명히 그 면적만큼 도로로 편입되는데도 완공이 된 후에 다시 측량을 하여 보상을 한다는 이유로 70%선만 보상하고 30%를 남겨두어서 시가와 보상가의 차액은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용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층에서는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30%를 1년후에 줄려는지, 2년후에 줄려지는 알지 못하는 실정에 지연을 시키니까, 이사람들은 적은 돈을 보상 받아 집을 새로 짓거나 다른곳에 택지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속히 해결을 해주는 방법을 가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합니다.

다음 세번째로, 이 도시계획을 3년차라는 과정에서 3개공구로 나누었는데, 이 3개공구라는 것은 원도로만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을 하기 위해 구간을 나누었는데, 그외에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는 소방도로라든가, 그외에 할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사업을 3개 공구 구간을 내년에 마치더라도 그 후에 여기

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지 질문코 합니다.

그다음 네번째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봉평면 도시계획이 76년도에 수립이 되어 근20년간을 한번도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주변의 여건상 변경해야할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변경 못하는 실정이고, 가장 시급한 것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난 중에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표시를 하고 오른쪽 지역은 전체를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금 봉평에 가보면 왼쪽줄은 그럭저럭 건축물들이 여기저기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는 하나도 손을 못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좁은공간에 건폐율 때문에 도시계획상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으로 된곳은 건폐율이 80%가 되고,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70%가 되니까 건폐율 때문에 집들을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내년에 어떠한 경우에도 도시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상업지역을 확장해야만이 제면모를 갖추고 도시계획을 하는 필요를 느낄수 있도록 해주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회 추경에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변경용역비를 상정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 재정형편상 어렵다는 이유로 기획실에서 책정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본예산에는 이것이 어떠한 경우라도 이 예산을 확보하여 일부 변경되어도 제대로 도읍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다음 철거주민에 대한 택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누차에 걸쳐서 어려운 주민의 입장을 덜어 주기 위해서 택지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본의원이 드린바도 있습니다. 그간에 각 부서간 협의과정에서 진행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95년도에 마무리를 하자면 이택지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어 연초에 최소한도 철거

민들이 그쪽으로 철거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상당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뚜렷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어려운 주민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떠한 방식으로 철거를 하겠다는 속 시원한 얘기도 안나오고 또 대지를 마련해 준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그사람들이 얼마만한 값에 살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할 수 있는지,

확실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주민들이 방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문제도 명확히 해결 될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 봉평면 청사 증축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봉평면 청사는 새로 지은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당초에 규모면에서는 총건평은 상당히 면적이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집을 쓸모있게 짓지 못하여, 현실적으로 새로운 장비가 읍면에 도입이 되니까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사무실이 협소하다보니까 장비를 전부 들여놓고 직원들은 의자를 놓고 앉아서 일할 공간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뒷편으로 뒷벽을 털어서 증축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면 있는 그속의 벽을 털어서라도 어떤 조치가 되어야지 장비는 들어오고 직원들은 일 할 공간이 없으니까 일은 못하고, 그뿐만이 아니죠,

협소하니까, 민원인이 민원을 봐야하는데 민원인들도 들어갈 공간도 없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청사 협소문제는 조속히 해결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었으면 해서 질문을 합니다.

다음은 가산공원을 정비 해야하는데, 첫번째로 그 공원내에 낡은 가옥이 있는데 당초에는 가옥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철거가 안되고 있어서 미관상 무척 보기 흉합니다.

이것을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원을 조성해놓고 공원내에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조그만한 편의시설이라도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도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산 공원을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서 질문을 합니다.

다음으로 휘닉스파크 보광이 무이 지역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개발지역 인근 마을인 면은2리 지역하고 무이2리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편히 살수 있고 또한 앞으로 어떠한 생활을 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줄수 있는 개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닉스파크를 개발함으로써 해서 보광만 개발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소득관계를 연계해 주어야 하는데 그냥 방치해 두면 대기업이 하는일을 쳐다만보고 우리는 조상대대로 가꾸어 왔던 귀한 옥토를 그들에게 돈 몇푼에 팔려서 물려주고

쳐다만 보는 형편이 될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휘닉스파크와 연계해서 어떤 소득을 가져 올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주시기를 질문 합니다.

그다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난번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 무주리조트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 보았더니 쌍방울이 무주리조트를 개발하면서 지역의 발전기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회사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에서는 발전기금을 회사 받아서 장학기금으로 쌍방울이 하고 있는 무주리조트에 해당하는 서천면에 5억을 주고 나머지는 무주군이 장학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우리 본군에서 이러한 것을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봉평면 창동4리 남안동에 문화공보부에서 문화마을로 지정만 해놓고 있습니다.

동료의원이나 관계공무원등 모든분들이

지금 과연 그곳이 문화마을로 지정이 되고 수년이 지나오면서 무엇을 해놓았느냐는 것은 한번쯤 반성을 해보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최소한도 효석생가복원 이라는가 생가 쪽으로 가는 진입로를 정비 한다든지 시급하게 해야할 문제가 엄청나게 산재해 있는데, 전혀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동감합니다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조속히 문화마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되어 있는지,

또 계획은 있는지, 그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다음 한우경쟁력사업에 대하여 질문요자 합니다.

이 한우경쟁력사업은 농어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농어민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시책으로 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부터 책정하고 확정하기까지는 본군 축산과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여 대농민 홍보도 철저히 해야하고, 또 사업추진도 잘하여, 그야말로 주민과 소득이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어야 하는데,

지난번 현지확인차 몇군데를 둘러보니까 주도적으로 해야할 축산과는 객이되고, 축산업협동조합에서 모든것을 신청 받고, 결정을 다해놓은후에 해당과에서는 해당과에서는 짜인만 하여 확정을 지어 놓으니까 별별 문제가 다 생기는 겁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기존시설물에다 레미콘 한차로 대충 100m정도 발라놓고 이도로는 소가 다니는 목도라, 본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모두가 이것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을 해놓는것입니다.

소가 다니는길, 소가 초지위에 풀먹으려 다는길에 시멘트 바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효력도 없고 가치도 없고 기존의 이미 목도가 목장안에는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비,군비를 지원해서 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잘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본군 축산과에서 성실하게 했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사업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정을 촉구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및 주정차단속요원이 저회군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하천관리는 환경문제를 더 철저히 다루기 위해서라도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준용하천에는 전문적인 관리인이 함으로써 오염에 방을하고 하천을 잘관리하여 피해도 적게 하고 여러가지 관리상에 중요성이 절실한 처지에 적은 인원을 가지고 군의 많은 하천을 관리한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한것으로 생각이 되어 관리요원을 증원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다음 주정차 단속요원도 평창, 대화, 진부, 도암 4개읍면만 한사람씩 나가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더 증원을 하여 이사람들이 주정차 질서를 우리군에서는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인원 증원을 하여 정비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다음 봉평 시가지에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름 피서철에는 영동고속도로가 막히니까 봉평으로 우회를 하라는 고속도로마다 표지판을 세워놓고 해서 그쪽으로 차들이 유도가 되니까, 엄청난 복잡성을 이루게 되고 휘닉스파크가 개발되면서 대형차들이 수없이 드나들고 하여 시가지는 좁고 주차장 시설이 시급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건의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소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농촌마을에 유희지 또는 폐천부지가 상당히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그만 공원을 조성하여 농촌의 삭막함도 막고 또 농민들이 땀흘려 일하다가 그늘나무 밑에서 오손도손 모여서 마을의 발전이라든가 살아가는 이야기들 나눌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줄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주민들도 공원조성 하는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

어, 다시말하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를 한두그루씩 갖다 심어서 잘 기르게 하고 자기 이름을 표찰하여 정성껏 키우면 자기고장을 아끼는 마음도 한결 높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겠습니다만은 아기자기하게 주민들이 모여서 서로 웃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소공원을 조성할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韓榮一 : 주대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樂雲 議員 : 김낙원 의원입니다. 먼저 관광특구 지정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자유로운 관광산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광산업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특구

를 지정하기 위한 대책에 따라 강릉과 용평지구를 1권역으로 묶어 관광특구 지정 신청서를 강.평.명 의정협의 이름으로 정부및 언론기관등 각계 요로에 건의한바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수가 10만명을 넘지 못한다는 경직된 통계상의 이유로 특구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관광특구지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과 최선의 행정력을 집중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창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가시적인 성과는 얼마나 거두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황계, 용평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국인 관광객수는 무려 5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동고속도로 4차선의 조기 확장과 연계하여 보광에 휘닉스파크리조트, 오대산 관광호텔, 용평리조트의 확장, 오대산국립공원등 지역휴양지 개발이 가속화 될것으로 예상됨으로 오대산 면은 지역을 1권역으로 묶어 관광특구로 지정되는것이 평창군 관광개발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의 의지

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궁도정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평창군의 궁도는 도민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에서 여러차례 상위에 입상하는등 평창궁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평창군은 궁도협의회 건의에 의하여 평창군의 전산인 노성산 정비와 병행해서 노성산활터에 노성정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94년 당초에 5천만원을 계상했으나 1회추경에 항목변경으로 삭감하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2단계사업비로 1억을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군의회에 추진경위에 대한 설명이나 협의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총 사업비 2억6,100만원의 총가입찰을 보았을뿐만 아니라 28개 업체가 참가한 입찰에서 최저가 경쟁입찰결과 총가입찰 92%에 유성건설로 낙찰되었습니다. 많은 군민의 의혹을 받고 있는 궁도정 건립에 대하여 몇가지로 구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궁도정 건립에 소요되는 2억6,100만원의 자금확보 계획및 협회부담금 5,000만원 추장과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둘째, 입찰에 참여한 28개업체명및 계약상황을 서면답변하시고, 저가 입찰임에도 92%의 고가 입찰자가 낙찰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총가입찰을 하기 전에 군의회로부터 계속사업비 승인을 득하거나,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실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독자적으로 예산집행을 수립한것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를 경시하거나 우롱하는 처사이며 군민을 경솔히 생각하는 발상 이므로 지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군예산 부족으로 달동네 정비사업과,봉평 도읍정비마무리사업비 20억 '94화훼단지미부담금 3억등 폭증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일뿐만 아니라 송정택지분양부진으로 36억의 예산에 결함이 생겨 예산운영에 심각한

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무시한다는 지역주민과 언론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항변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4 차선 확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동고속도로 확장 공사에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설명회가 평창군 관내 주민과 군청을 상대로 실시되었습니다.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이기도한 영동고속도로4차선 확장공사를 선거때마다 도민의 표를 몰아간 단골 메뉴로 이용하면서 10여년간 미루어 오다가 97년착공 2001년 완공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설명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한여름 피설철이면 도로 전구간이 주차장화 되었고, 겨울은 폭설및 빙판으로 교통정체현상이 매년 심각한 수준까지 치닫고 있는 이때에 4차선 확장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는 매우 반가운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평창군을 경유하는 고속도로 연장 거리는 무려 100리가 넘는 43km가 4개면

에 주요 거점지역을 통과 함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 75년 2차선 고속도로개통이후 20년간 주민생활과 농업수단에 가장 불편을 주었던 지하통로 위치및 규격을 우리 뿐만 아니라 먼 후손들까지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것이며,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며 발생하는 자동차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음벽설치와 직선화 터널화로 생기는 2차선 고속도로 국도 격하 문제와 연결도로 개설문제, 특히 포장물 시멘트포장을 아스콘포장으로 설계변경을 유도하여 동절기 빙판사고 방지대책등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최대한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97년 월드컵스키대회 99년동계아시아대회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대회개최를 위해서 건설부장관 국회 답변대로 95년말 착공, 98년말 완공목표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강력하게 힘을 결집해 나가는데 군에서의 확실한 의지

와 집념을 가지고 앞장설 것을 촉구하며 특별히 평창군에서는 실시 설계되기전에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하여 실시설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군민의 염려스러움을 완전히 해소할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4차선고속도로를 물려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전반적인 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 오염방지및 활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낙동강 폐놀사건이후 은 국민이 수질오염에 대한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구표면에 물로 덮혀 있고, 인체의 3분의2가 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물은 인간의 삶과 생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것입니다.

농촌의 환경오염은 주로 지하수 관계용수및 토양의 오염과 생활환경및 자연경관의 파괴형태로 나타나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주민 70%가 생활용

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오염 문제일 것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가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65%지하수가 세균 및 질산테질소로 오염 되었으며, 또한 경희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질산테질소는 음용수 허용치의 3배가 검출되었고 평균치도 허용치로 육박하고 있으며 카드뮴, 납, 아연 , 구리와 같은 중금속도 약간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수질 오염은 화학비료및 농약의 과다 사용, 가축분뇨의 비효율적인 처리가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화학비료사용량은 성분량으로 90만~ 100만톤에 달합니다.

이것은 1ha당 450kg으로 미국보다 4~5배 동남아 개발도상국 7~10배 높은 수준입니다.

농약 사용량도 1ha당 13kg으로 미국, 독일등에 비해서 4~5배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포된 물량의 30~60%는 유실된다고 하니 연간 30만~ 60만톤의 비료와 7만 ~ 1,200t이 농촌의 환경 오염원이

되는 셈입니다.

도시의 생활하수와 분뇨, 그리고 산업 폐수등도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물과공기, 그리고 철따라 변하는 숲일것입니다.

그중에서 지하수 자원이야말로 세상의 어떤것보다 보배로운 자원일것입니다. 늦은감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오염원을 제거하고 모든 국민이 지하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지하수 개발 현황과 관리실태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특히 강원도가 거두적으로 실시하는 맑은물 보전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농촌주택개량으로 설치한 생활오폐수시설과 축산농가가 설치한 축산폐수 시설 관리 실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구조개선을 위한 군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UR협상 타결 이후 온세계는 WTO 자유무역 경쟁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무한 경쟁체제하에 급격히 변하는 세계와 국제화에 우리나라의 농수산업은 발가벗긴채 경쟁시대에 뛰어들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농민과 농민의 경쟁, 이웃과 이웃의 경쟁이 아니라 거대한 중국, 거센 압력의 미국, 경쟁국인 일본등 세계각국이 자국의 이익.득실을 앞세워 밀고 들어 오는 세계와 경쟁할 수 밖에 없는 한국 농업이 설수 있는 자리는 과연 어디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42조의 재원이, 98년까지 투자 한다지만 뚜렷한 투자 사업이나 받아들인 인재가 부족하고, 특소세의 15조원을 10년간 투자 하고 있지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모든 것들이 지금 이전에 이미 투자되어 강력한 경쟁력의 바탕위에서 강대국들과 경쟁을 한다해도 불리할 수밖에 없

는 우리의 농업임을 우리모두는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늦은 농업정책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정부지원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불행중 다행일 것이며,

정부의 의지를 믿고 우리 스스로 농촌의 진흥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중단 없는 추진을 계속해야 할 것이며, 농업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과 모순은 유통구조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통감하면서 획기적인 대책이나 방법이 모색되지 못하고 있는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 몇년동안 군에서는 지역 농축협과 협조하여 서울과 지방에 농축산물 직판장을 개설하고 또 청과물 유통센터를 건립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낫다는 지적이 높는데 그동안의 각 직판장및 유통센터의 지원 규모와 판매 실적, 그리고 경영수지내역을 밝혀 주시고, 재산의 김치가공공장과 장평의 감자가공공장이 이미 건설되었고

대화의 단무지 공장이 건축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필요한 가공공장의 유치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운영의 실태와 경영의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창식품은 노사분규로 1년 가까이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동부식품 또한 제대로 가동을 해 보지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각 업체들의 문제점및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용자지원의 규모및 회수방안등과 업체들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심혈을 기울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평창군 농촌의 장기적인 유통구조개선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하계피서인파의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비지정관광지는 관광관련법에 의해 공원이거나 관광지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락 휴식공간으로 이용하

는 지역을 준관광지로 지정하여 이용객으로 부터 청소료를 징수하는 곳으로 89년 군조례에 의하여 비지정관광지는 16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운영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계곡 하천등 유원지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역주민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지정관광지운영의 문제점은 끊임없이 제기 되었던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지역 여건이나 이용객의 관리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않고 상대대상지를 선정함으로써 오히려 비지정관광지를 지정않는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한것도 많이 있습니다.

청소료징수를 둘러싸고 징수원과 이용객사이의 마찰은 계속생기고, 화장실등의 기본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데 대한 불만의 돌출 쓰레기 처리와 관리 문제등 그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가 제대로 이용된다면 유원

지의 환경오염도 막고, 피서행락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농축산물의 판매, 민박, 간이매점등 소득원을 개발하여 주민소득을 올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효율적인 비지정 관광지관리및 운영을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16개소 비지정관광지가운데 징수 규모가 작고 이용피서객이 현저하게 작은곳은 별도 자연보호관리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에서는 불합리한 지역지정으로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화장실, 주차장, 급수시설등 기본적인 편의시설등 이용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설투자 대책 ,

세째, 비지정관광지지구내에서도 많은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를 한정해서 개방하고 보전가치가 있거나 협소한 지역은 통제를 함으로써 중요한 관광자원을 아끼고 보전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하는데 평창군에서 구상하는 비지정관광지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료 징수금도 현행 소인 500원,대인 1,000원이지만, 편의시설투자및 관리비등을 감안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므로 청소료 징수금 현실화 대책과,

다섯째, 비지정관광지 인근 주민들이 생산한 농특산물 직거래등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획기적이고 계획성있는 적부체계와 간이판매장 설치를 위한 군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이 지향하는 행정의 목표와 의지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평창군의 행정은 뚜렷한 목표없이 직흥적으로 계획했다가 어려우면 취소하고, 추진하지 아니하는등 무계획 무소신 행정으로 군민들로 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평창군의 행정에 누수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몇가지 사업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8,000만원이 소요되는 관광먹거리 사업을 군에서는 뚜렷한 이유없이 포기했습니다.

UR대용사업으로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논란끝에 의회승인을 받았으나 부지매입비가 비싸고 건축비가 모자라서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삭감요구가 1차 추경에 상정되었습니다.

지역토산품과 지역특산품및 특색있는 먹거리의 홍보와 생산된 농축산물에 대한 판매활동으로 지역상품에 대한 소비촉진 판매시설에 대한 운영수입금으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겠다고 침이 마르도록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강조하던 공보실장께서 삭감안을 들고 들어와 삭감이유를 설명하는 모습이 평창군행정의 실책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단면일 것입니다.

두번째는 공익개발로 시도했던 송정택지 개발사업도 당초부터 세입예산의 문제점을 지적 세수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촉구하는 건의서까지 첨부한 의회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택

지분양의 저조로 93년 결산과정에서 불용액이 32억 발생했음에도 순세계잉여금은 8백만원만 이월할 수 밖에 없는 재정운영에 큰 헛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평창읍 택지개발사업 포기건도 군청앞 정비차원에서 모두가 필요를 동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사업은 대상자의 참여의도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45~49%의 감보율이 결정적으로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이었다면 투자비 확대등 적극성을 보이지 못한 업무추진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사업이었습니다.

네번째, 금당계곡 군립공원지정문제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수반되지 않음으로써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볼때 모든 행정이 주민들로 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아니라 불신과 의혹으로 집행부를 힐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순간의 구상을 인기 위주의 아침성 사업계획으로 발전시킨다면 군민의 혈세가 탕진되거나 소모

성 예산으로 낭비되고 말것입니다

평창군이 지향하는 행정의 목표와 의지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장의 소신있는 행정이 강력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현안문제들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한기수 부군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군의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평창군에서 계획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로 한 계속사업중에 95년도에 투자하여야할 내용은 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사업내역은 평창종합문화예술회관에 12억이며, 연차사업내역은 봉평도읍정비에 20억과 달동네정비사업의 9억1,300만원, 횡계교량가설 5억1,000만원, 대화체육관 6억4,000만원, 도암면청사 8억9,000만원, 공설묘지조성 1억등 총 50억6,000만원이고 추가입찰사업도 평창공도정과 상리교량가설 천변리주차장조성등 2억7,500만원으로 평창군에서 계획 94년도 이

어서 95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총 사업비 규모는 국비 58억1,000만원, 도비 9억7,600만원, 군비가 무려 36억7,300만원등 총 104억5,900만원이며, 청사신축, 상.하수도사업, 송정택지사업등으로 군이 빌려온 기채 135억4,400만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 10억7,0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농어촌 대책사업등의 군비부담등을 계산하면, 95년도 재정운영에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 평창군의 기채 채무부담등 부채액이 예산의 24%수준으로 재정의 위험수준이 30% 육박하고 있으므로 부채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등 재정전반에 대한 통제가 시급한 때입니다.

이모든것은 평창군의 재정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즉흥적인 행정 집행으로 사업을 확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항간에서는 평창군을 팔아도 산더미같은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모든것이 무계획, 무소신으로 발단된 것이며, 시작만 해놓으면 후임자 누군가가 할것이라는 안일무사, 무책임한 발상들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평창군에서는 '95년도의 방대한 재정수요를 어떻게 꾸려나갈것인지 총체적인 위기에 대해서 이명기 군수님께서 직접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쯤록 본의원이 질문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완전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평창군의 확고한 의지와 행정집행의 도움이 될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韓榮一 : 김낙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정회한후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0分 停會)

(11時 04分 續開)

(의장 한영일 부의장 김종영과 사회석 교대)

○ 副議長 金鍾永 : 좌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이어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꺾문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文春 議員 : 꺾문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 소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을 한 해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평창건설을 위하여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재정자립도가 28%에 불과한 영세한 군으로서 군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우리는 다함께 풍요롭고 살기좋은 평창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95년도 군정운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세히 알수는 없지만은 지난 '93년도 한마디로 말해서 그어느해 보다도 가장 불실한 재정을 운영하였다고 지적

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지적사항으로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이 총 73건에 공기부족으로 94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었고, 또한 앞에서 김낙운 의원님이 지적한바와 같이 32억원이 넘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재무회계법상 위해되는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1,753만 4,000원이 이중으로 편성되었고 평창상수도확장시설비 2억이 불용액으로 처리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었고, 또한 의회의 의결없이 1억원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칙적으로 과목을 변경한것은 재무회계법상 있을수 없는 일이라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서는 위의 지적사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질문에 대하여는 어제 동료의원들의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각읍면별 폐천부지 매각실정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택지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정택지조성은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공익사업으로서 큰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문민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억제와 금융실명제 실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등으로 인하여 분양 저조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초의 설계가 잘못됨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방향에 대한 현황과 주차장 부족분에 대한 앞으로의 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R개방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 경쟁력을 이기지 못하면 도저히 살아남을수 없는 길이라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용평면 재산리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리온실을 시범적으로 신축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태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방제피해목별채와 허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몇년전부터 솔잎혹파리로 인하여 산림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고, 전 산림공무원의 피나는 노력으로 다시금 많이 희생된것을 볼때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우리군에서는 수간주사2,500ha와 피해목별채 900ha, 항공방제1,500ha, 1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자 되었는데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소생이 힘든 피해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직장체육팀 운영실태와 앞

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구성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경제성장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소외감은 여전합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천여명이 되고 지원대책에 대하여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소관 질문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부재중임으로 상세한 답변을 듣지 못하므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기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金鍾永 : 다음은 한영일 의장님께서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韓榮一 議員 : 한영일 의원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군정의 전

업무를 제쳐두시고 본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정질문답변에 응해 주신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시고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몇가지 핵심이 빠졌거나 또 추가될 질문이 있을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먼저 관광시설과 주민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 용평리조트나, 오대산국립공원, 이승복기념관등 또 기존 관광지에 연간 2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휘닉스파크리조트, 청소년수련장이 완공되고 또한 금당계곡이 국립공원으로써 지정 개발될 경우에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수는 연간 약 300만명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거점도시 개발과 거기에 따른 각종 도로 정비등 접근 체제가 계승되어야 하며, 민간자본의 유치등 여러가지 대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

다.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밝혀주시고, 없으면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여 언제 추진할 것인지 방향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지역과 다른곳의 국립공원은 집단시설등 대단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동료의원들과 함께 가본 계룡산 국립공원이라든지, 덕유산국립공원 가야산국립공원, 인근에 있는 월악산국립공원의 집단시설등은 우리 군내 있는 오대산국립공원과는 차원이 다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자유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오대산국립공원은 집단 시설지구라고 하더라도 대단히 빈약하고 여기에 대한 보완이나 또 도로망에 대한 앞으로의 정비계획등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평창군종합개발계획수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보통 지

역간 균형개발이란 말을 씁니다.

지역간 균형개발이라는 것은 전국토 어느곳에 살던지간에 같은 조건과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개발계획을 또 우리가 수립하는 것은 재정의 계획성 있는 효율적인 투자와 또 주민이 내일을 내다보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것을 의미 합니다.

본의원이 의회 개원초에 군정질문에서 제기 한바 있고 종합개발계획도 공청회 까지 가진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고,

또한 이 종합개발계획이 수चना열식이고 지역현실을 도의시한 계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내에 발족된 강원개발 연구원의 용역을 의뢰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한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공무원의식개혁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화시대가 이렇게 실시되고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의회가 구성된지도 어언 4년이 가까와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라고 하는것은 주민자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관치행정에서 관행이 계속 통용되고 있는 현실정도 우리가 간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의회 개원초 군정질문에서도 자치 의식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필요할것이고 또한 필요하다고 할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이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행정및 지방자치의식에 대한 교육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입장에서 볼때 근 4년간 4년 전과 현재가 정말로 의식이 바뀌어 졌는지 그대로 있는지 하는 생각을 또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료의원들께서 평창군상수도에 대한 긴급성과 필요성내지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앞으로 시설해야되고 또 본 상수도나 간이상수도가 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이것이 시설이되고 확장이 되어야 할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상수도 보수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지적한 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평창상수도 확장공사를 했고, 또 지난 여름 홍수시에는 진흙물이 나와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산바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 2000t 생산 규모의 고속침전기 1기를 공사비 5,550만원을 들여서 '94년 10월 15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주민과 음식점등에서는 인근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등지에서 물통으로 물을 날라다 먹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오히려 과거의 확장하기 전보다 수질이 떨어지고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상수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의 인식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많은 공무원들의 생각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청내에 있는 공무원이 상수도로 음용을 하고 있는지 물을 길러다 먹고 있는지 자성해 보시면 아실수 있을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할 봉평광역상수도라든지, 또한 진부상수도, 형계상수도 이런 같은 맥락에서 볼때에 우려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평창상수도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여과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처음 공사를 할때 원수가 1급수이기 때문에 침전지가 없어도 자동여과기만 설치하면 수질을 염려할 것이 없다고 관계관은 답변하였습니다.

용역을 준 곳에서의 의견은 홍수 탁도가 문제가 될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이를 간과 한것은 이문제 도외시하고 자동여과기만 설치한것은 행정의 미숙에서 온것이라고 관계과장님이 답변한바 있습니다.

상식에 속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행정의 미숙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서 간과가 될수 있느냐, 의문이 없을수 없습니다.

특정한 이유가 있었던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둘째 자동여과기는 밀폐식급속여과기로서 관리가 적절하게 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수질관리상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91년 기술지원 대상시설중 수처리공정에 자동여과기에 의한 여과와 소독한다음 급수하는 시설이 12개시군에 있었으며, 이들 시군에 취수원 종류를 볼것 같으면 복류수가 8개소 저수지가 1개소 지하수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한곳도 이 표류수를 사용한곳은 없습니

다.

그러나 평창상수도는 표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곳에서 사용하지 않은 표류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평창군상수도에 적용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셋째로는 이방법으로는 통상탁도가 5도이하의 원수가 유입되었을때에 가장 적절하게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원수의 탁도가 높을때는 여과기의 과도한 탁질 부하가 발생하여 역세척시간이 다시말씀드릴것 같으면 그안의 여과된 여과사를 다시 세척하기위한 역세척시간이 보통은 5분 ~6분 걸리는 것이지만, 이렇게 탁도가 높을때는 10분~20분이 소요가 되고, 역세척에 소요되는 수량도 정상에2배~4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자체에 역세척의 수저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때문에 역세척이 불충분하게 되어서 여과사가 쉽게 더러워지고 불량한 역세척으로 인하여서 역세척의 직후에는 여과된 여과수의 탁도가 오

히려 원수탁도의 수배~ 수십배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과사도 쉽게 탁질이 오염이 되어서 수질과 경제성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 놓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여과는 밀폐되어 있습니다.

내부 점점이 매우 불편합니다.

1년에 3~4회 이 점검구를 해체해서 여과사의 손실여부라든지 진흙이나 여과사등이 여제와 뒤범벅이된 머드블이 발생했는지 이런 또 그안에 들어있는 스트레이서가 이탈이나 부식이 돼있지 않은지, 이에 대한 상용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평창상수도의 점검회수및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홍수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고속응집침전기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시설은 91년 기술지원대

상시설중 33개 시군에서 설치 운영된바 있습니다. 거의 복류수나 저수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수였습니다.

단 표류수는 다섯군데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개소는 응집약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과방식이 급속여과이기 때문에 탁도에 변함폭이 작고 또 수질의 유입이 일정한 경우라야 다시 말씀드리면 일정한 수질과 일정유량이 운영관리에 최적조건이기때문에 표류수는 상대적으로 최적조건을 갖출수 없기 때문에 운영관리상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평창상수도의 경우 원수의 수질변화에 수치상의 변화 이것이 고속응집침전기의 사용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결국 고속응집침전기의 침전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고속응집침전기의 침전효율이 떨어질것 같으면 탁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절기에서 발생하는 스컴이라는 것을 제거하고 이끼류의 번식이라든지 또는 침전한 슬러지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전염소 또는 클로로칼키를 투입해야 됩니다.

만약에 배수지에서 유리염소 잔류량이 1.5PPM이상이 유류되어야만 수도전에 공급수가 법정잔류염소농도가 유지될수 있다고 볼때에 이때 또 염소를 투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투입한 염소속에서 생성된 트리할로메탄의 수질이 적합한지, 이것에 대한 제거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트리할로메탄은 현재 미국에서 발암물질로 인하여 상수에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세번제로 이시설은 수리학적인 형태로 봐서 상.하 우회식으로 약품을 사용하여 미세한 부유물 또 비중이 작은것

이런것을 큰 덩어리로 만들어 침전속도를 크게 하여 조속한 침전을 이룬 방법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약품으로는 보통 황산반토를 사용할 것입니다.

황산알미늄이 되겠습니다만은 액체를 사용할 것인가, 또 물에 알카리가 들어가 적을때는 응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알카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성소다 또는 소다회 이런것을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소다회를 사용하는 것은 남아 있는 황산염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부유물의 양이라든지, 색도라든지 침전시간 소원등에 대해서 이액체 황산반토의 소요량이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정량적인 투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인해서 고속응집침전기의 운영관리에는 숙련된 기술과 수질검사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인력과 수질검사가 필요하다고 본의원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것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맑은물을 마음놓고 먹을수 있다고 하는것은 평창군의 자랑입니다. 향후의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상수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기술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다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金鍾永 : 한영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네분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1시에 들은다음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후 오후 1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3分 停會)

(13時 04分 續開)

○ 議長 韓榮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表福均: 문화공보실장 표복균 입니다.

주태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공원정비에 대하여 공원조성 현황과 휴식.편의 시설 설치계획 공원내 가옥철거대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평면 창동리는 90년 6월 13일 문화부로부터 문화마을제 1호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마을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이효석선생의 창작정신을 기리고, 작품모델을 보전하기 위하여 '93년 군비 1억2,000만원을 투자를 했고, 1,369평부지에 회양목 300주와 잔디 503평, 화단경계석 559m, 화강경계석 41m, 석회타일 16평, 벤치 10개소를 갖춘 가산공원과 이효석동상을 건립

하였습니다.

휴식편의시설 설치계획은 95년당초 예산에 9,5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여, 투시영담장 200m, 공중화장실 1동, 성황당건립 1동, 음수대 1개소, 가로등 6개소, 종합안내관 1개소, 주변보완으로 문화공간을 제공코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93년 공원부지조성사 사업비 부족으로 철거하지 못한 구가옥으로 인하여 짜임새 있는 공원조성의 지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내년도에 2,500만원을 투자하여 가옥철거와 공원확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입로 정비및 효석생가복원등 문화마을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평면 창동리 일대는 가산 이효석이 태어난 마을로 근대 한국단편소설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메밀꽃필무렵의 작품무대가 되었으며 이지역은 국내에서 드물게 작가의 생가와 작품무대가 원형그대로 남아 있어 시범마을로 지정되면서 1991년 효석생가 진입로 1km, 확포장 사업

과 시비건립, 생가표석을 설치하였고, 1992년 가산공원 조성등 여러가지 문화마을로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으나 창동리 시장입구에서 창동 교량까지 도시계획 정비 사업이 완결되지 않아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도시계획 담당부서와 협의, 정비하여 나겠으며, 효석생가복원 사업은 현생가 소유자의 창동리 홍재철씨의 토지매매조건과 보광에서 공사중인 휘닉스파크리조트개발에 따른 봉평지역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매입에 따른 군재정의 한계로 사업추진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문화체육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마을개발정책수립과 예산지원 건의를 통하여 창동리 일대로 문화사적과 지역주민의 소망을 해소기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휘닉스파크리조트 개발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평면 면은리, 무이리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평면 면은리는 휘닉스파크리조트 개발 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방치할때에는 무계획적이고 산발적인 관광개발이 우려됨으로써 계획적인 관광마을로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도 예산 5,000만원을 확보하여 국토이용계획상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발주하여 지난 10월 21일부터 착수하였으며, 용역은 내년 4월말 완료되어 이효석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무이리 안흥동지역에는 국토이용계획상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지정과 면은리 삼동 지역에는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용역 발주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절차를 취하여 보광 휘닉스파크리조트 개발과 연계하여 주변마을이 계획적이고 지역주민이 관광개발참여에 용의하도록 관광개발여건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휘닉스파크리조트 개발에 따른

주민소득 연계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휘닉스파크리조트내에 농특산물
코너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소득과 직결
되도록하며, 휘닉스파크리조트 주변 마
음은 민박등을 유치토록 권장하고, 휘닉
스파크리조트내의 종업원을 지역주민을
최우선 고용토록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휘닉스파크리조트 발전기금 회
사 유도용의에 말씀드리면, 발전기금
회사 유도는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의거 직접 유도는 할 수 없음을 말씀
드리고, 간접적으로나마 지역발전과 주
민소득향상을 위한 시설투자를 유도하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95년재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확보된 13억중에 용역비와 감
리비를 제외한 11억5,000만원과 도비사
업 간이시공과 진흥기금, 내년도 군비
확보액을 가지고 실현할 계획이며 부족
되는 돈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에 추가
건의할 계획입니다.

도나 중앙에 추가 지원이 불가할 경우에
는, 5개년계획을 수정하여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
특구지구지정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
겠습니다.

먼저 관광특구지정에 대한 개념을 말씀
드리면, 관광특구는 자유로운 관광산업
을 보장하고 관광산업과 연계된 관계법
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
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영업시간 배제,
또 특구나 관광사업체에 대한 정부지원
우선등 각종 혜택이 주어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여건을 말씀드리면,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각종 관광산
업이 분포되어 있어 관광객의 다양한 관
광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어야 하고,
두번째는 당해지역에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이어야 하고,
세번째는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과 바다와산림, 하천또는 도로등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되어야 특구로 지정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지난 94년 7월15일 도암면 황계리와 용산리, 수하리일대에 17,965km²에 대한 지역을 관광특구지정 신청을 강원도에 제출하였으나 94년 8월4일부터 8월9일까지 7일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우리군이 제출한 신청자료및 심사를 통한 검증결과 관광특구지정 필수요건인 최근 1년간의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이상이 안된다는 이유로 특구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구지정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은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유로 지정에서 제외된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특구지정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면 충분히 지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관광자원이 타지역보다 위에 있어 관광특구지정신청시 유리한 조건이 많아 특구지정은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3년내에는 우리군내에는 용평스키장을 비롯하여 현재개발중인 휘닉스파크리조트, 오대산국립공원등 다양한 위락시설을 갖춘 관광시설이 대거 자리잡게 되어 사계절 관광지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릉시의회에서 용평지역을 묶어 특구지정 움직임에 대하여 검토한바 강릉시 의도는 단독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수가 절대 부족하여 관광특구지정이 불가능하므로 우리군을 이용하여 특구지정을 받아 강릉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도 전체적으로 볼때는 많은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관광강원의 이미지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측면 또 균형적인 발전과 조기특구지정을 위하여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8월 교통개발연구원 조사시 외국인 관광객수가 우리군은 55,000여명이고, 강릉시는 5,000여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강릉시에서 요구하는대로 강릉과

용평지역을 관광특구로 하는 방법과 평창군 단독으로 봉평휘닉스파크리조트 진부 오대산국립공원, 도암 용평리조트 전역을 묶어 특구로 지정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릉과 도암지역을 묶어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인근 자치단체와 더불어 발전할수있고, 조기 특구지정을 받는 잇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으로는 대외적으로 강릉권 관광특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우리군만 지정받았을경우는 설사 시기적으로 조금 지연된다 하더라도 우리군 관내 지역을 지정 받을수 있고 고원 관광지로서 사계절 관광지로 각광받을수 있으며 특히 하절기에는 관광객이 강릉시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밤에는 관광 위락시설이 많고 시원한 우리군 지역에서 숙박을 하며, 위락시설에 많은 돈을 쓸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 했을경우에 는 이러한 현상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

날것입니다.

그러므로 두가지 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 효율적인 운영과 하계 피서인파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운영결과에 대한 성과와 미흡한 점을 분석한 결과 법정지구 이외의 계곡 하천등 주요자연 발생 유원지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비지정관광지 제도가 시행5년째를 맞이하면서 지정개소를 최초 시행한 년도에 비해 8배가 증가하였으며,

이지역의 찾는 피서객수도 24,000명에 이르는등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행정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등 긍정적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으나, 이들지역에 대한 피서객의 선호현상이 점차커지면서 운영상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수용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일시 집중현상으로서 이로 인한 오염심각, 주차문제등 피서객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피서객 대다수가 비지정관광지를 법정관광지와 동일시하여 피서편의시설을 적극 요구하고 있으나, 여건불량, 예산부족등으로 이들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관광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현실문제를 최대한 수용하여 비지정관광지가 준관광지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 비지정관광지를 정예화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 부족한 기본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는등의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래방객 수요에 따른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 주차장, 야영장의 기반시설과 전기, 음료수대, 화장실등 편의시설의 부족과 ,

둘째, 행락객에 의해 방치된 쓰레기,오물이 대량 발생되었으나 일부 회수집적

된 쓰레기가 적기에 수거되지 않는등 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였으며,

셋째, 지역여건상 관리통제가 어려운 지역에 지정이 되었고, 또 농번기운영등으로 인한 부실 운영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비지정관광지 청소수수료징수액이 200만원이하인 지역이 17개마을중 14개 마을로 인건비 총당마져 어려운 실정으로 노인과 부녀자중심으로 운영되어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개선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지정관광지지정을 전면 재검토 하겠습니다.

검토할 내용은 지정요건으로 피서객이 많이 찾는 지역,

두번째는 관리통제가 용이한 지역

세번째는 최소한의 기본편의시설제공이 가능한지역, 네번째는 청소수수료징수액이 최소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지역등을 검토하여 비지정관광지가 준

관광지로 기능을 살리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정예화하고 , 관광지 차원의 축구차 철봉등 인공 유인물과 기반편의 시설등을 확충함으로써 단순한 보호 차원이 아닌 주민 수익및 재정확충을 위한 관리 시설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구역내 쓰레기책임 처리제를 확행하여 위탁관리자는 수거전 오물을 쓰레기 적치장까지 운반 관리하고 읍면에서는 쓰레기 적치장 오물을 청소차로 운반토록 책임을 분담하여 위탁관리 회원과 공무원합동으로 주기적 정화활동을 실시토록 하고 관리 규모에 따라 오물수거 전담 인력을 상근 배치토록하여 최소한 1일 1회이상 오물수거 활동을 전개토록 하여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또한 청소전담책임자 도입을 검토코자 합니다.

이는 청소이행보증금 예치제를 적용하여 위탁관리자로 하여금 책임청소제도를 유도하고자합니다.

따라서 실효성과 경비소요 위탁관리자 마찰등으로 고려 95년 시범운영후에 확

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편의시설설치및 관리대책으로는 주차시설은 간이주차시설을 연차별로 확충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공한지라든가 유희농경지 학교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최대한 확보하며, 교통장애가 없는 구역에 국한하여 도로변 주차공간을 활용토록 하겠으며, 화장실은 화장실 청결유지를 위하여 1일 점검제를 실시하고, 화장실 유료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설 이용료를 제고하고 이용통로 확보, 장애요인 제거등으로 화장실주변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분뇨수거를 적기에 수거하여 악취발생요인을 차단하고 또한 래방객의 편의를 위해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되는 곳에는 음료수대를 1개소씩 설치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기타 시설로는 안전사고 우려지역에 대하여는 경고판을 설치하고 매점과 식당등은 관련법규에 의한 적법절차 이용후 운영하고 마가지 요금, 임의적사용료 징수행위등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비지정관광지관리 체제를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모든 지역을 마을단체에 위탁관리 하던것을 지양하여 위탁관리와 군직영 관리 체제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군지역 관리시에는 지정대상중 위탁관리에 의해 필요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하여 관리요원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지도감독하고 쓰레기 처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책임수거 수시 자연정화활동 전개 방법등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는 청소수수료가 현실화 될수 있도록 재검토 하겠습니다.

현행 대인 1천원, 소인 5백원씩 징수하고 있으나, 비지정관광지 조례개정을 통해 95년부터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영일 의장님이 질의하신 평창군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 관광종합개발기본계획은 91년도에 용역발주를 해서 92년 5월에 수립되

어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종합개발기본계획서를 별도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韓榮一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운 의원 발언하세요

○金樂雲 議員 : 김낙운 의원입니다.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설명을 이해가 잘 가도록 설명하신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200만원이하의 청소료 징수를 한 지정된 비지정관광지가 14개지역이라고 하셨지요?

○文化公報室長 表福均: 예

○金樂雲 議員 : 200만원이라고 하면 거의 청소를 할 수 있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하여 조정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조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용율이

낮고 청소료 징수율이 낮은 지역을 제외 시키겠다는 뜻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表福均: 예 그렇습니다

○ 金樂雲 議員 : 그렇게 되면 그런 지역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 文化公報室長 表福均: 지금 현재 우리 비지정관광지 이외의 지역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환경보전차원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金樂雲 議員 : 관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表福均: 자연정화활동이라든가 아니면 하천관리차원에서도 많이 단속을 하고 쓰레기 투기행위를 방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樂雲 議員 : 관리를 하는것보다 더 어려움이 있고 더 훼손이 많이 되리라 생각하게 되는데, 그대책에 대하여 깊이 연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表福均: 좀더 연구를

하여 검토를 하겠습니다.

○ 金樂雲 議員 :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대책을 많이 세우셨는데 그런 대책을 이행하려고 하면 재정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청소료징수 금액을 올린다고 하면 시설, 편의시설을 확충해 놓고 나서 올려야지 확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청소료 징수 금액을 올린다면 그렇게 별 사람도 없고 오히려 시비만 자꾸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 하던 어떤방법으로든 편의시설을 더 확충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 겠고, 관리를 하는데 인력이 문제가 될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인력을 아르바이트 학생을 이용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위탁관리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선 방위 자원이 행정수요에 투입이 될수 있도록 그런 어떤 대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위자원을 이용할 수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表福均: 방위자원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요청이 안되어 있습

니다.

사전에 요청을하여 방위자원을 받게 되어 있고, 인력관리는 그렇습니다.

위탁관리 할 경우 마을에다 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단체에 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현재 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인력문제는 거의문제가 없고 제가 아르바이트생 문제는 지금 잘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한번 저희군에서 적용하는 방법, 그랬을 경우 그 인력을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모색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 金樂雲 議員 :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 설치된 화장실들은 여름에 30도 이상 올라가는 고온기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면 질식합니다.

그런상태의 화장실은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문제를 실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음에 편의시설을 확보할때에 그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表福均 : 화장실문제는 저희들이 금년에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만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늘진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 金樂雲 議員 : 청소료 징수문제가 대인은 1천원, 소인은 5백원인데, 5백원 1천원도 강원도내에서 평창군이 제일 먼저 인상 시켰을 겁니다.

조례개정을 할때에 그렇게 인상을 했는데, 앞으로 인상을 하면 얼마를 인상할 계획이신지?

○ 文化公報室長 表福均 :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되었습니 다만은 대폭 인상이 되어야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金樂雲 議員 : 예 잘알겠습니다.

○ 議長 韓榮一 : 주태원 의원 발언 하세요.

○ 朱泰元 議員 : 주태원 의원입니다. 문화마을 정비계획에 관해서 실장님께서 문화체육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체육부에서 기본계획수립을 지정한지
여러해 됐는데, 계획수립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몇년씩 경과
하고 하는등 마는등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건지 할려고 하는 의사가 있
는 건지 이것도 잘모르겠고, 그다음 문
화체육부에서만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가꾸어 나가겠다는 계획보다는
중요한 것이 우리 본 군에서도 병행해서
그지역을 보전할 가치가 있는것은 보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본군의 의지는 전혀 말씀
없어서 다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表福均 : 문화체육부
에서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왔다갔습니다.
실태 조사를 토대로 해서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군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저희들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효석공원부터 내년도에 투자를
하고 연차적으로 저희들도 할것을 검토
를 하고 있습니다.

○ 朱泰元 議員 :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韓榮一 : 박용태 의원 질문하세
요.

○ 朴容泰 議員 : 박용태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 관광특구로 지금 지정이 되
어 있는곳이 몇군데죠?

○ 文化公報室長 表福均 : 4개소입니다
금년에 지정된곳이 4개소입니다.

○ 朴容泰 議員 : 5개소가 아니지요?

○ 文化公報室長 表福均 : 제주도가 먼저
되고, 금년도에 지정된곳이 4개소입니다

○ 朴容泰 議員 : 지정된 곳이 유성하고
해운대, 설악산 4개소입니다.

지금 외국인 10만이상이 와야만 관광특
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외국인도 미국사람들이라든가 구라파 사
람들은 물론 외국인들이 와서 잠을 자
야만 그 숫자만 포함됩니까? 잠을 안자
고 그냥 왔다가 바로 가면 숫자가 포함
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 文化公報室長 表福均 : 잠을 안자고
가더라도 일단은 조사를 다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동양인들에게는 사실 구

분하기 힘듭니다.

우리 조사원들이 물어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할때 저희 관내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중에서 평창군 출신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시켜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도록 했는데도 미흡했었습니다.

○ 朴容泰 議員 : 관광특구를 지정을 받으면은 정부의 혜택 이라든가 여러가지 도움을 많이 받는거 아닙니까?

○ 文化公報室長 表福均 : 그렇습니다.

○ 朴容泰 議員 : 유성같은 경우를 보면, 그곳은 단지 호텔에 와서 잡자는 것 밖에 없는데, 여기는 강릉, 대관령 소금강 세곳을 묶어 관광 특구를 만든다고 하면은 사계절 사람이 늘 봄비는 곳인데 뭘 보더라도 이쪽이 많이 오리라 생각이 드는데, 뭔가 중앙에서 작용이 없다고 해서 제외된 경향은 없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表福均: 그렇지 않을 겁니다.

○ 朴容泰 議員 : 막말로 높은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방이면 되고, 이쪽은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돌봐주지 않는거 아닙니까?

무엇을 보더라도 유성이나 해운대를 비해 보면 이쪽이 훨씬 많이 온다고 생각이 들고 더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사적인 작용이 많은거 같아요?

○ 文化公報室長 表福均 : 강원도는 설악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朴容泰 議員 : 소금강도 설악산 못지 않게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앞으로 관광특구로 지정 받을수 있는 여건 수립은 안되어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表福均 : 앞에서 말씀드렸습시다만은 저희가 두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방침은 안섰습시다만은 이쪽 휘닉스파크개발과 오대산주변 개발을 하여 이쪽 평창지역을 묶어 관광개발을 했을경우에 제가 보기에 2~3년이내에 관광특구로 지정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朴容泰 議員 : 잘알았습니다.

○ 議長 韓榮一 : 추가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高昶植 : 기획실장입니다. 광문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73건이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하고 32억원이 넘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총 이월사업은 총 86건으로 군에서 처리한 사업으로 명시이월이 10건 사고이월이 58건, 읍면에서 추진한 사업이 18건으로 본사업은 대다수 수해복구 사업으로 국도비보조내시 지원과 동절기 공사가 불가능 사유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중에서 사고이월 76건과 명시이월 7건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공설묘지 조성사업 그리고 황계수해주택 택지조성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신경제 100일 운동과 관련하여 절감대상 비목의 확대로 경상경비, 경상사업비, 관서당운영비 인건비등 12억 8,400만원이 절감되고, 예비비를 비롯한 전출금 지역개발양여금 봉평 도움정비사업 상수도전출금과 내무부 장관 특별지시에 의한 예산절감 추가 책정지시로 인해서 실행예산편성과 공사 입찰차액등이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하게된 사유중에서 이러한 많은 불용액 처리가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건전한 재정을 운영치 못한 점을 기획실장이 통감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1,753만 4천원이 이중 편성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군정시책 추진의 공통적인 업무수행이 경비부족, 여비, 급양비, 시간외근무수당, 관서당 경비는 예산통합 관계에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시간에근무수당 1,754만4천 원도 추가요인이 발생하는등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결산검사때에 도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기회가 되어 있는 행정감사 시에 질문을 해 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창상수도 확장 시설비 2억원을 불용처리한 상수도특별회계 1억원을 의회의결없이 일반회계로 처리했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1993년도 일반회계 3억 6천4백7만4천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였으나 상수도요금인상과 입찰잔액등의 사유로 3억1,7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일반회계 재정결함에 충당하기 위하여 1억원을 환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례등은 잘못되었다면, 향후에 명확하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은 한영일 의장님이 질문하신 평창종합개발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은 93년 10월 10일 강릉대학교 영동산업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94년 4월 26일 도 건설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됨으로써 94년 11월 17일 오늘 현재 강원도 건설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지금 현재 강원도지사의 결재신청중에 있습니다. 도에 의하면, 11월 이내로 결정회의됨에 따라 즉시 저희군에 보내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본계획을 저희들이 접수하게 되면 즉시 공고를 해서 본계획에 의하여 평창군이 개발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영일 의장님이 말씀하신 본계획은 평창군을 향후 개발해 나가는데 청사진 역할을 한다는 것은 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쉽다는것은 용역을 맡은 기업이나 단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됨에 따라서 계획의 당위성을 인정할 수있을까는 미지수입니다.

제생각에는 100%의 흡족할만한 계획이 나온다고는 저 역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계획은 처음 각 시군마다 처음 시작하는 이런 계획이라서 도계획이나 저희 계획이나 충분한 계획이 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나온 계획은 보다 완벽한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좋은 조언을 해주셨었는데, 저희들이 강원개발연구원이 개원을 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보기에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현재 수립중에 있는 평창군종합개발계획은 가능하다면 좀더 자문을 얻고 검토를 받아 완벽한 계획이 되도록 철저히 시정을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韓榮一 :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주태원의원 질문하세요.

○ 朱泰元 議員 : 주태원의원입니다.
조금전 답변중에 절감예산조치에 따라서 불용액처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내시된 국도비 보조가 삭감됨에 따라서 본군에서는 연말에 결산하기가 지난해 지나까 반드시 당해 연도의 시행할 사업을 좋지 않게 생각을 하면 고의적으로 지연을 하여 꼭 사업을 해야할 사업인데도 불용액처리를 해서 결산하는데 도움을 받은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은 불용액처리된 내용중에는 불가피해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는것도 있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은것도 상당히 있는데 이것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 결산하는데 흡수가 되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 企劃室長 高稔植 : 사실 제가 행정력이 뛰어나지 못해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히 배우고 연구를 하여 앞으로 좀더 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韓榮一 :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아무소리가 없음)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쉽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계획이 납품
된 다음에 의회에 사전 양해를 구하고
또 내용에 대한 현황을 보고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협의하는것이 정당한 절
차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의원들이
다 앉았지만 그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
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그 지역
의 어떤것이 들어가고, 안들어간 내용은
모릅니다.

그런 경우라면 앞으로 계획자체를 추진
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이 공개화되고 주민의 협조를 통해
서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서는 앞으로 충분히 유의
하셔서 도에서 결정이 되어 내려오는

대로 협의를 해 주시고, 보완할것은 보
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權純喆 : 사회진흥과장
권순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회진흥과 소관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태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평
도움정비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예산확보계획에 관한 사항입
니다.

총 사업비 43억9,300만원중에 미확보 예
산은 93년에 10억2,000만원과 94년 14
억 4,100만원등 총 24억6,100만원을 투
자하였으며, 자원별 내역은 국비 4억500
만원 도비 4억500만원, 군비 16억6,000
만원으로서 국도비 부담율이 18%인데
비해 군비 부담율이 82%에 달함으로써
재정규모가 열악한 본군으로서는 큰 부
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을 마무리하게 될 95년도에는 총 19억3,200만원으로써 국도비 지원계획은 약 8억정도에 지원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억이 넘게 소요되는 군비 확보 문제는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있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나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시책사업을 집중투자하는 방안은 강구해서 95년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입토지및 지장물 보상계획에 대한사항입니다.

총 보상계획은 토지 142필지에 15,520㎡와 지장물 57동 주거대책비등 10여건이며 보상액도 총사업비의 86%에 해당하는 37억8,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총 18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보상 84필지와 지장물 47건 기타 27건에 대하여 토지는 70%의 보상을 실시 하였으며 잔여분 30% 보상액도 토지분할 확정 측량 결과에 따라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문제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금토록 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95년도 보상계획 물량은 토지17필지와 지장물 10건, 기타 15건이 되겠습니다만은, 95년 1월중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보상액을 상정하여 상반기중에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기반정비공사를 실시하여서 연말까지는 도읍정비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개공구의 소방도로의 향후계획은 예산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현재로서는 검토할 수 없는 실정이며 다만 도읍정비사업이 끝난 후에 이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읍정비 대상자중 건물 철거 대상자에 대한 택지분양 문제는 봉평면 창동 4리에 2필지, 약 2,500평정도의 균유지를 행정관리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 절차중에 있으며, 입주 희망자를 조사하여 도로, 상.하수도등 기존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계법에 따라 택지를 분양하고 택지분양가는 감정 절차에 따라서 가격이 산정

된후에 적법하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일부변경계획과 대책은 해당과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태원의원님이 질문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도정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사항중에 입찰참가자 내역과
입찰가 내역은 해당과에서 별지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도정 건립은 평창군의 역사적 상징인
노성산을 공원화계획 수립추진중이며,
그동안 각종 체육대회서 우수한 성적을
올려 군민의 명예를 드높이고 국공발전
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공도협회의
숙원인 공도정을 병해건립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도정은 1층에는 공도장을 2층에는 공
도정을 건립할 계획이며, 공도정은 전통
한옥식으로 18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
니다.

총 입찰가액은 2억 1,900만원으로써,
재료비가 7,878만3천원, 노무비가 7,230

만4천원, 기타 6,886만2천원이며, 본사
업은 건축공사로서 분리 발주가 불가하
기 때문에 불가피 총가입찰을 하게 되었
으며, 사전에 의원님들의 계속비 승인을
받지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공도협회 자부담 내역은 설계비,공도장
주변의 복토, 잔디피복등 주변정비사업
에 5천만원을 부담할 계획이며,
현재 확보예산은 1억원이며, 입찰가액의
부족액및 지장전주이설비등 1억3,500만
원은 95년도에 최대한 확보하여 건물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낙운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
습니다.

다음은 곽문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
장체육운영실태및 향후운영 계획에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체육부는 지난 90년에 침체되어 있
는 강원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강원도및
도체육회주관으로 각 시군 한종목 이상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직장체육부는 90년에 여자테니

스부에 이어서 92년 씨름부로 교체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창단당시에는 5명이었으나, 지난해말 선수2명이 타실업팀으로 이적해서 현재 3명만이 있습니다.

직장체육부 연간운영예산은 인건비, 대회출전비, 훈련비등을 포함해서 9,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중 선수 인건비는 코치가 월평균 80만5천원, 선수가 76만 5천원으로써 도 실업팀 월평균 보수액, 코치 91만1천원과, 선수88만7천원보다도 약간 낮은 수준이며, 금년에는 선수 미확충으로 당초예산에 인건비만 책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보면 93년까지 정원확보시에는 도민체전, 전국체전등 각종대회에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므로써 도및 군체육회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금년에는 미확충 및 예산의 부족으로 각종 대회에 미출전함으로써 별다른 성과를 겨냥치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 씨름팀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선수확보및 지역체육발전의 기여도 면에서 관내 학교에 육성종목과 무관해서 연계 육성이 불가하고, 선수 확보를 위하여 외지 유명선수를 영입해야할 뿐만 아니라 선수 확보를 위해서 기소속되어 있는 선수의 보수및 안정적인 취업등을 고려하고 조건을 고려하여 타실업팀으로 이적하는 사례가 많아서 선수 확보에 항상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두번째, 선수 훈련면에서는 지역내 상대 훈련선수가 없어서 씨름부가 있는 한림대나 타지역에서 원정 훈련을하여야 하므로 선수 숙식등 훈련에 따른 과도한 운영비 지출과 선수단의 지도 감독등 효율적인 운영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 씨름팀의 문제점을 군에서 정밀히 진단해본바 지속적인 운영보다는 타 종목육성을 검토하게 되었고, 11월 12일 레스링팀을 육성키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여 현재 육성에 따른 세부계획수립중에 있고 이후 강원도및 도 체육회와

협의를 거친후 지도자와 선수를 선임할 계획에 있으며, 참고적으로 본 레스링팀을 육성하는데는 도및 체육회의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내년 1월7일 창단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3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議長 韓榮一 : 사회진흥과에 대한 보충질문은 잠시 정회한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읍면향토지출판 기념행사 참가를 위하여 정회한후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53分 停會)

(15時 05分 續開)

○ 議長 韓榮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회전에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원 의원 발언하세요

○ 朱泰元 議員 : 주태원 의원입니다. 봉평도읍정비에 관련하여 용지보상문제에 대해서 석연치 않아서 다시 질문코자 합니다.

과장님 답변중에서 토지분할 확정측량을 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앞으로의 이런사업을 봉평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또 도로를 내거나 여타 주민이해관계가 되는 보상관계는 당초에 확정측량을 해서 보상을 할때에 함께 100%보상이 되도록 해주어야지 행정 편의를 위해서 해놓고 사업의 마무리 지은 다음에 70%만 주고 30%는 마무리된 다음 준다라고 하는것은 엄청난 모순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특히 용지보상이라 함은 거의가 표준지가 기준에서 감정가로 보상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시가에 기준하면 50%에 불과한 것을 강제로 수용하다시피하는 불만도 주민에게는 엄청나게 큰데, 거기에다가 70%주고, 30%태어났다가 사업이 끝

난다음에 확정측량을 하여 절금절금주면 보상을 받아서 사용해야할 주민도 한꺼번에 못쓰니까, 아무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도읍정비 같은것은 수십년전에 도시계획선에 그어져 이미 땅이 몇평이 얼마만큼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도로로 편입된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는것인데, 무슨 감정에서 70%주고 확정한다음 30%준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에 확정을 지어 주어야 하고, 그렇게 시행된 30%를 언제까지 확정 측량을 해서 연말까지 보상지급을 완료한다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社會振興課長 權純喆 : 보상관계는 조금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봉평 도움은 지금 현재 측량해야 할것을 작업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어렵고 측량이란것이 눈이 오거나 다른 지장물이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주도

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내년 2~3월까지 예측을 합니다. 2~3월까지는 아니지만 금년도에 할수 있으면 빠른시일내에 주고 별다른 지장이 없으면 빠른시일내에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議長 韓榮一 :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낙운 의원 질문하세요.

○ 金樂雲議員 : 김낙운 의원입니다.

궁도정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궁도정 건립에 5천만원 협회에서 부담하겠다고 , 5천만원은 설계비, 복토비, 잔디 피복에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5천만원을 부담하기로한 부담금은 평창군 재정으로 일단 세입이 잡혔다가 지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 社會振興課長 權純喆 : 그것은 우리가 세입으로 잡지 못하고 자부담에 프라스시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MBC하고KBS의 케이블이 그쪽으로 통과해서 그것도

옮기고 , 또 복토를 해서 잔디를 입히고
그다음 설계도등 주변정리를 합니다.
군에서 세입을 잡거나 그러지는 못합니
다.

○金樂雲 議員 : 그다음 유성건설에서
도급업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유성건설
의 이사로 계시는 김건하씨가 공동협회
사도로 계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하여 항간에 많은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社會振興課長 權純喆 : 그 의혹은
모르겠습니다.

공정하게 재무과에서 입찰을 봤는데
아마 공정하게 입찰을 해서 그분이 낙찰
이 된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 金樂雲 議員 : 마지막으로 한가지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총가입찰로 입찰을 하셨는데,
1억1,1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할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1,100만원에 대한 예산 협의라든가

의회에 와서 충분한 협조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
서는 이와 유사한 사업이 여러차례 있었
습니다.

그때마다 입찰을 하고 나중에 와서 이렇
게 되었으니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시요
그러한 협조에서 지금까지 잘 넘어 왔
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그러한 쪽
으로 총가입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해
요. 이러한 일이 있을때마다 대충 넘어
가는 그리고 예산이 오르면 또 승인을
해주는 의회의 잘못도 있겠지만 집행부
에서 그래도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의결
기구인 의회를 너무 무시하고 너무 조롱
하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총가입찰했다
가 내년엔 1억1,100만원을 승인못받고
삭감하면 그 책임 누가 질거나 말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權純喆 :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승인을 못받은점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업무 미숙으로 의회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말씀 못한 것이지 절대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조롱한것은 없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문제는 절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議長 韓榮一 : 곽문춘 의원님 질문 하세요.

○ 郭文春 議員 : 평창군 직장체육팀에 대하여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금년도 예산에 체육팀예산을 삭감을 할려고 하였으나, 과장님께서 상반기만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해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제대로 출전을 한번도 못하고 우리 군비를 9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공짜로 지불하는 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社會振興課長 權純喆 : 출전관계는 네사람일때 두사람은 가고 나머지 두사람은 도민체전에 가서 금메달을 따고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땀습니다.

다른 실업팀으로 가신분은 출전은 못했지만, 나머지 두분은 출전을 해서 기여를 했고, 당초에 의원님들이 말씀 하실 때 금년에 해체하는것으로 했는데, 두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해체가 될려면 작년 연말에 해체가 되어 그분들이 앞으로 다른 소속팀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대회에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의 질책에 따라서 다른곳으로 가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만은 두분은 갔습니다. 나머지 두분은 그분들만치 실력이 별로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스카웃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말에는 씨름부는 해체를 하고 내년 1월7일까지 별다른 지장이 없으면 우리 계획대로 레스링으로 창단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郭文春 議員 : 과장님께서 앞으로 평창군 체육팀을 레스링팀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선수진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까?

○ 社會振興課長 權純喆 : 선수진은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예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보여 드리겠는데, 몇가지 조항이 있는데, 우선 보수관계, 전국.도대회에서 우승을 하였을경우에 특별히 주는 훈련수당 즉 보너스관계, 전국 또는 강원도내에서 등위를 못들었을때에 경고 아니면 제적하는 과정을 별도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계획이 확정된후에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 郭文春 議員 : 본의원이 질문을 그런 뜻으로 한것이 아니고, 가급적 잘하든지 못하든지 금메달을 따든 이것을 떠나서 우리군에 거주하는 우리 평창군에 거주하는 선수들로서 육성을 해야지 잘한다고 외지에서 많은돈을 주고 스카웃하는것은 안됩니다. 잘하든 못하든 우리 평창군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생각하셔야지 ,외지에서 대리 고을 계획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 社會振興課長 權純喆 : 자격요건이 맞으면 평창군 사람을 우선적으로 쓰고 만약에 지역요건이 안되면 타시도 좋은 선수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 郭文春 議員 : 평창군에 레스링팀이 있지요?

○ 社會振興課長 權純喆 : 지금현재 고등학교에 작년까지 운영이 되다가 금년에 학교사정에 의해 해체가 되었습니다. 기존 이지역 출신 선수들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섯명을 확보할 계획인데 다섯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평창군 출신으로 최대한 확보를 하고 안될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여 뽑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韓榮一 : 추가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아무소리가 없음)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李永德 : 재무과장 이영덕입니다.

주태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봉평면 청사 증축과 내부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읍면 청사중 95년 신축계획으로 있는 도암면 청사를 제외하고 모두 신축한지 10년내의 밖에 되지 않는 건물들이나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대부분 시설이 협소하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봉평면 청사뿐 아니라 다른면 청사도 대대적으로 시설보수 또는 증축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봉평면 청사증축은 재정형편상 도암면 청사 준공후에 읍면 청사 확충계획을 마련해서 시설개선이 단계적으로 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개선이 시급한 청사부터 우선순위에 의거 정비해 나가겠으며, 내부 변경문제는 해당면에서 청사관리비를 사용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韓榮一 :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안계시면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姜慶錫 : 사회과장 강경석입니다.

곽문춘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등록 현황과 향후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등록된 장애인 현황은 총 481명으로써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자가 331명, 시각장애자 36명 청각.언어장애자 71명, 정신박약장애자 43명이며 이를 등급별로 말씀드리면, 1급이 53명, 2급 101명, 3급 129명 4급 이상이 198명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원실적입니다.

중복 장애인으로서 생활보호법과 의료법에 규정한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21명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법이 지정한 생계보조 수당을 연간 국비 50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지원대상 12명에 대해서

휠체어, 의족등 5종을 국비및 이웃돕기
성금으로 235만8천원 상당의 보장구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아동특수학교인 춘천 대성
학교에 입학한 학비지원 2명에 대해서
84만6천원, 다음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비 보조로서 33명에 29만5천원등
금년에 68명에 대하여 연간 총853만9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평창분관에서 물리치료를
연인원 612명에 대하여 실시한바 있습니
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생계보조및 보장구
등 지원상황은 계속 상향 지원토록 노력
하였으며, 특히 내년도부터 중증 장애
인의 자녀에 대한 실업계 고등학교학생
에 대해서는 학비를 전액 지원하겠습니
다.

또 장애인에 대한 제도상의 보호책으로
생계수당이나 보철용 자동차에 대하여
는 특별소비세 면제 추진과 1급내지 3급
지체장애인과 1급내지 4급 시각장애인에
대하여도 자동차세 면제등 혜택을 확대

실시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후반기에 늦게 발족한 지체장
애인 협회지회를 각읍면 분회가 결성되
는대로 장애인 자립기관 구축에 협의기
구로 운영토록 육성 지도하겠으며,
장애인복지관 평창군분관에 물리치료를
보장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
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
습니다.

○ 議長 韓榮一 : 답변에 대한 보충 질
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곽문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文春 議員 : 어떻게 장애인들에 대
한 1급, 2급은 어떻게 분류를 했습니까?

○ 社會課長 姜慶錫 : 장애인복지법 시
행규칙에 보면 시각장애자는 어떻게 되
어 있는 몇급이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郭文春 議員 : 1급 장애인들은 신체
에 어떤.....,

○ 社會課長 姜慶錫 : 1급은 중복 장애

자들이 많습니다.

언어는 못하든가, 거동이 불편하든가, 중복으로 되어 있는 장애자가 1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 郭文春議員 : 장애자들의 체육대회가 있는줄 아는데 과장님 다녀 오셨습니까

○ 社會課長 姜慶錫 : 저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장애인 협회가 강원도에 22개시군중에서 평창군에 장애인 복지분관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실시 했습니다.

이사람들이 군협회로 정관을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 있고, 다만 각면에 분회가 결성이 안되어 있고 진부에서 진부 나름대로 평창군 장애인 협회를 구성을 해서 강원도지구는 춘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횡성에 있습니다.

횡성에 등록을 해놓고 하부조직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년에 장애인 복지 경기대회를 자기내 나름대로 갔다온....

○ 郭文春 議員 : 과장님께 통보도 없이 갔다 왔습니까?

○ 社會課長 姜慶錫 : 예 그래서 그후에

제가 갔다온 결과를 알고 내년도에도 나갈지 모르니까 내년초에 장애인 협회가 운영하는 사업계획서 받아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것을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議長 韓榮一 : 추가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아무소리가 없음)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學根 : 환경보호과장 김학근입니다.

김낙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맑은물보전 대책시책중인 사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전에 저희가 평창군전체 종합계획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희 업무소관인 어제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내 수질오염 발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오염원이 1일 10,000t정

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생활하수가 900여톤, 산업폐수가 224t, 분뇨가 55t, 축산폐수가 488t, 송어장등에서 182t이 나옵니다.

저희 군 전체적으로는 1일 10,000t정도 발생하는데 생활하수가 그중에서 90.8%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가 84%가 됩니다.

우리가 도에 비하면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 오염원에 대한 방지 대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 종합대책은 총 26개 단위사업으로써 25억 6,700만원에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6개 단위사업중 21개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의 4개 사업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정비사업은 1개소에 0.4km, 2,1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하였습니다.

상수도 급수시설 확충및 보수는 노후관

1km, 개량기 교체 473개소, 정수시설 1개소를 확장하였고,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9억8,800만원입니다.

농촌변소개량사업은 총 910동, 지금현재까지 준공이 208동이 되어 있고, 추진중에 있는것은 702동이 있습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은 용평면 장평리에 1기를 250t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농촌쓰레기 처리 대책으로는 총 사업비 4억800만원을 확보하여 청소차량 확충의 9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간이정화사업은 17개 농가및 틈밥발효축사 7개소가 준공되었습니다. 수질오염예방및 감시활동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폐수배출업속 지도단소 추진실적은 배출업소 31개소에 9회에 걸쳐 연 203개업소를 지도 단속하고, 개선 명령 9개소에 배출부과금을 1,40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하천오염 예상감시는 17개소및 8개읍면 합동으로 22개 책임구간을 지정하여 순

찰조를 통해서 오염사고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질 측정망은 17개 하천에 16개 지점을 측정하고 연 5회 실시해서 수질변동 상황을 파악하여 향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양식장은 신고대상 배출시설 10개소에 방지시설운영상태를 4회 점검 실시한 있습니다.

보수정화시설및 분뇨정화조 관리는 47개소를 점검해서 6개 위반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수질검사를 47개소 실시 하였습니다.

환경보전명예감시지도관을 41명을 위촉하여 신고업소를 320매 공중전화카드를 41매를 배부하여 하천오염 행위 예방및 감시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의식제고와 홍보시책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국토대청결운동으로 청결 책임구역에 138개소를 지정하고 124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수거기초시설로 휴지통 200개를 개보수하였으며, 12개를 신규설치하였고

그밖에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지도 점검은 467업소에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8개 업소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하였으며 홍보사항으로 교육2회 홍보전단 2,000매를 배부 사전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내용은 음식점과 농가를 겨냥해서 40농가가 마을공동 퇴비장 2개소 36㎡을 설치해서 ,교육 1회, 군수 서한문 1회 반상회보 4회를 게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폐식용류 재활용을 통해서 비누제조기 1기를 보급하였고, 폐식용류 3,050ℓ를 수거하여 8,500장의 비누를 생산하여 가정에 보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韓榮一 :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운의원 질문하여 하십시오.

○ 金樂雲 議員 : 김낙운의원입니다.

답변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수질오염의 주범이 생활하수오염이 9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통제가 나와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시 되는것이 농촌의 농가들이 주택개량을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과 동시에 정화조 시설을 하고 있는데 간이정화조 시설이기 때문에 제때 수거하거나 관리 하지 않으면, 그 오수가 그대로 하천에 유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행정적인 지도를 하거나 홍보를 해서 철저하게 지켜질수 있도록 군에서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는 앞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외에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學根: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릴 기회가 되겠습니다만은 95년도 저회 시책사업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신규 주택을 건립할때에는 지금현재는 분뇨정화조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수정화조는 지금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권고를 하고 행정지도를 할 계획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金樂雲 議員 : 오수정화시설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발생 하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學根: 분뇨정화조는 기성정화조가 있는데 시설하는데 5인용에서 30인용으로 기성정화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5인용정도면 30만원정도, 시설비까지 하면 5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오수정화조에 대한 것은 시설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설치를 안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수가 없습니다.

○ 金樂雲 議員 : 건축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뇨정화조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學根: 예 지금 법상 나와 있는것이 없고 내년부터는 신규로

신축을 하는 농가나 특히 음식점은 오수 정화조를 설치 하도록 권고 하도록 방침 을 가지고 있습니다.

○ 金樂雲 議員 : 예,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소규모 양축농가 10두이상 50두이하 소 규모 양축농가에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설만하고 관리를 안하면 투자 효과가 없습니다. 축산정화조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學根: 이렇게 말씀 드리면 업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되는데 그것도 송어장을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규제미만이 있고 규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미만은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규제이상 예를 들면 소 100두이상 건평 100평이상의 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맑은 물 보전 시책과 연계해서 분기에 1회씩 계속 점검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 없는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金樂雲 議員 :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學根: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 金樂雲 議員 : 삼양축산도 관리하고 있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學根: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 金樂雲 議員 : 거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겁니까 ?

○ 環境保護課長 金學根: 문제가 조금 있다고 판단되는것은 산상에다 액기통을 만들어 놓고 산상에서 관리하는 퇴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부식이 되자면은 3개월 이상 부식을 하여 산상에 놓아야 하는데 우리가 수백만평 되니까 일일이 가서 확인을 하는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행정지도는 계속하고 있고, 그곳은 방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들이 다니면서

분뇨를 배출하는 것은 방지하기가 사실 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와서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목도라든지 이런 곳을 소가 다니면서 방뇨하는것은 즉시 자체에서 처리를하는 방법으로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 金樂雲 議員 : 삼양축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강력한 행정지도력을 발휘해서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될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별문제 없다고 답변 하였고 그외에 대규모 양축농가들의 축산 폐수문제는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어오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學根 : 계속 확인하고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 議長 韓榮一 :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아무소리가 없음)

조금전에 환경보호과장께서 생활하수가 하천오염의 주 원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또 생활하수 가운데서 오수 정화조를 설치하는것을 권장 장려하겠다 , 92년도 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92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분뇨에 대한 정화조를 설치해놓고 일정기간동안에 수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칙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해는 하는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은 하나도 거의 얘기가 안돼요 그래서 분뇨처리하는 환경위생공사에 물어 봤어요, 요즘 정화조 청소를 하는나 작년에는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크게 없습니다.

일시적인 지도감독을 가지고는 아무리 분뇨에 대한 정화시설을 만들고 오수에 대한 정화시설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규제할것은 규제하고 , 또 독려할것은 독려하고, 주민들을 계몽할때는 계몽을 해서 이것이 스스로 이루어 질수 있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時漢: 산업과장 김시한
입니다.

먼저 김낙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군의 대책에 대하
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농산물 직거래를 위하여
대도시, 고속도로변, 내고장 으뜸상품판
매장등 직거래 판매장을 운영하고있으며
그 운영실적으로는 지난 94년 5월 성동
구 중구4동에 직판장을 개설하여 운영하
고 있으며, 이는 93년도에 1,166명이
이용하여 2억7,100만원이 판매액으로
올랐습니다.

'94년도에는 10월말현재 이용객이 28,40
0명으로 5억2,000여만원이 판매고를 올
렸습니다.

이는 '93년도 보다 약 92%가 더 증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95년도에는 더 증가 판매될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관령휴게소내에 내고장 으뜸
상품판매점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이용객이 5,500명에 8,700만원의 농산물
을 판매 하였고,

다음은 이목정휴게소의 설치한 판매장
에 대한 5,960명이 이용하여 1억1,800만
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직판장은 우리고장의 농축산
물의 판매를 함으로써 평창군의 농특축
산물의 홍보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기
여 할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고속도로변 휴게소가 증가하는 관계로
운영실적이 예상보다는 저조한 실정입
니다.

앞으로 운영주최인 관계농협으로 하여금
직판장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평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유통개선사업으로 농축산물 산지
가공공장인 메밀가공공장을 봉평면 원길
리에 455평, 진부면 송정2리에 김치가공
공장 713평을 건립하면 앞으로 평창군
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로가 확대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과물종합유통시설은 93년 8월에 착공하여 94년 9월 26일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적으로는 94년 11월 15일 현재 양채류등 6종을 130만t정도 처리함으로써, 1,7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청과물종합유통시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평창군농산물 유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평면 장평리에 소재한 동부 식품가공공장은 92년도에 220평의 기계류를 설치하여 저희들이 용자금으로 3억5,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본 운영실적은 93년 12월말 현재 고추가루등 5개품목에 295t을 가공 수출하였으나, 94년도 현재까지는 업체경영 수지 적자로 미가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94년 10월 가동촉구를 하였으나, 앞으로 미가동시에는 계속 촉구하여 가동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평면 재산1리에 위치한 평창 식품김치가공공장은 현재 휴업중에 있습

니다.

이사항은 저희 지원사항이 아니기때문에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

앞으로 본 직관장을 이용 내고장농특산물 판매를 확대하여 나겠으며, 장기 구상으로는 평창군특산물이 잡곡류와 감자 고냉지채소등을 이용한 산지가공공장 확대설치는 물론 채소류 주스를 개발하여 UR대응사업으로 육성발전해 나가겠으며, 상품성 제고를 위한 포장제를 개발하여 소비자 기호에 부응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광문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R개발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하여 용평면 재산리 유리온실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유리온실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92년 9월 5일부터 '93년 9월 20일까지 건축을 완료 하였고, 재산영농조합법인이 93년 6월 20일부터 10월1일까지 토마토 4만주를 파종하여 '93년 12월 24일부터 1단지를 시작으로 '94년 8월 30일까지 총 386t을 생산하여 현지에

서 판매하고 있으며, 뉴코아, 한양유통
맛나식품, 신라유통, 대형백화점등에서
겨울철에는 1kg당 3천원에서 3,500원을
받고 여름철에는 1kg당 1천원에서 1,400
원을 받아 현재 총 8억1,700만원을 수익
을 올렸습니다.

기타 연료비등 5억3,400만원을 공제하
면 2억8,200백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
로 분석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재산 유리은실은 수요가 증대
됨으로써 전망이 밝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답변틀 마치겠습니다.

○ 議長 韓榮一 :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운 의원 질문하세요.

○ 金樂雲 議員 : 김낙운 의원입니다.

성동구 판매장을 개설하여 상당히 판매
고를 올린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주 판매품종은 무엇입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곡물과 파채류하
고 가공식품입니다.

○ 金樂雲 議員 : 연중 우리지역에서 나
오는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기가

연중 몇개월 됩니까?

계속 공급하기는 어렵지요?

○ 産業課長 金時漢 : 가공식품이나, 축
산물은 계속 공급이 되고, 곡물까지는
되는데, 채소류는 안됩니다.

○ 金樂雲 議員 : 판매하는곳을 가보니
까, 평창군에서 농사가 되는 시기가 불
과 4~ 5개월 동안은 평창군에서 생산되
는 농산물이 출하가 되는데, 타지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값다 놓고 팔고 바닷가
에서 나오는 해산물등등해서 우리군과
상관이 없는 농산물이 많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공쪽으로 좀더 많은
심려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냐는 생각
 들고, 그다음 동부식품에 용자가 3억5천
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거의 실적이 없습니
다.

고춧가루를 얼마 수출했다고 그러지만
거의 실적이 없는데, 지금 이사람들이
부동산투기 의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동도 하지 않으면서 전용허가를 받을

려고 몇번씩 들어왔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 결국은 받지 못했는데, 이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부용자나 받고 지목변경시켜서 대지화 해서 부동산 지가만 올리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고 또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엔 용자금을 회수 하든지 뭔가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럴때는.....

○ 産業課長 金時漢 : 지금 촉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동을 안할 때에는 용자금 회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 金樂雲 議員 : 그 규정이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사업감독은 농수산부 직속입니다.

저희들이 위탁감독하는 것인데, 감독을 해서 계속 촉구중에 있습니다.

지금와서 사업을 할거나 안할거나, 안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 金樂雲 議員 : 기관이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기간이 얼마까지 지속이 되면 용자금 회수를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냐 말입니다.

○ 産業課長 金時漢 : 그런것은 없습니다.

○ 金樂雲 議員 : 그건 없습니까.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할려고 하면 하고, 안할려고 안하는,

○ 産業課長 金時漢 : 안하고 있으니까 용자금 3억5천만원을 농특자금으로 용자를 했으니까, 부실업체 같으면 정리를 해야죠,

○ 金樂雲 議員 : 그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될것 같고, 재산에 있는 평창식품은 올 3월달에 휴업을 하여 아직까지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 관내에 유치된 농산물 가공공장이기 때문에 식품이 정상적인 가동이 될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이나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하였습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저희들이 않았습

니다.

○ 金樂雲 議員 : 안했어요.

남의 일이니까 별볼이 없다 이겁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조치를 한번 하겠
습니다.

○ 金樂雲 議員 : 너무 무관심 하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개인기업이 들어와서
자기자본으로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뭔가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말입니다.

지원은 안했으니까, 그 회사하고는 별볼
일 없다는 얘긴데, 이건 결국은 행정기
관의 책임회피밖에 안되는 거예요.

지금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실시된다고
봤을때 기업유치문제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 상황속에서 들어와 있는 기업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 하면 누가 이지역
에 개인기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너무 무관심 해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평창식품뿐만아니라
다른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리에 단무지 공장도 들어와 있는

데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몰라요 지금
정부의 특혜가 주어지니까, 그것을 이용
하여 부동산투기하러 들어오는지, 진짜
이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하기
위해서 들어 오는지 그런 선별 작업도
잘 이루어져야 되고, 일단 허가를 득해
서 사업을 하게 되면 뒷받침을 잘해서
업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 그러면
결국은 간접적으로 그 지역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時漢 :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韓榮一 : 주태원 의원 발언 하
세요.

○ 朱泰元 議員 : 주태원 의원입니다.

먼저 이목정휴게소안에 설치한 판매장이
과장님도 실질적으로 판매실적이 저조하
다는 걸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방문해 보니까, 농협하고 축협
이 반칸씩 맡아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
로 이목정휴게소에 들리는 사람들은
오후늦게, 서울쪽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라면 동해안쪽을 들러서 돌아갈때에 우리고장 농산물이나 평창한우고기를 사가지고 갈려고 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 5시가 지나가면 공무원식으로 판매장을 관리하니까 문을 닫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막대한 군재정을 투자해서 위탁을 해놓고 관리하는 측에서는 무성의하게 관리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만들어 놓으나 안만들어 놓으나 똑같은 형태입니다.

관리가 잘되어야 합니다.

○ 産業課長 金時漢 : 그래서 그것도 일요일 토요일 하고 월요일 쉬는것으로 타협을 몇번했는데.....,

○ 朱泰元 議員 : 판매장이 월요일쉬고 공무원 퇴근시간에 퇴근하고 9시에 문 열고 그것이 판매장이 아니죠.

이해관리는 관리하는 농협이나 축협이 이해관계를 떠나서 지역농특산물을 농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으로 팔아야 판매장이고 군비를 투자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손익 계산서만 뽑는 것은 판매장

이 아니죠.

별도의 관리에 신경을 써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겁니다.

그다음 대관령종합청과물유통시설은 금년도에 시설을 이용했는데, 우리군 관내 읍면별로 얼마정도 이용했는지 궁금하고 이용을 할려면 t당 얼마씩 비용을 부담할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있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時漢 : 지금 이자리에서 숫자를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朱泰元 議員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관령 유통시설이 현재까지 대관령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만 저장시설이 되고 이쪽 미탄이나, 평창, 대화, 방림, 용평, 봉평, 진부 여타면에서 한건도 저장을 했거나 유통시설을 이용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대화에서 일부 이용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 朱泰元 議員 : 대화에서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결구상추가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 朱泰元 議員 : 이런 시설을 한쪽 변두리에다 해놨다는 것은 그 자체도 문제가 되기는 됩니다만은 기시설을 했으니까 널리 홍보를 해서 전체 군관내에 있는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짓는데만 급급해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홍보를 안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고 그것은 투자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일단 지어 났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될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만 제대로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예

○ 議長 韓榮一 : 김낙운 의원 질문하세요.

○ 金樂雲 議員 : 김낙운 의원입니다.

방금전에 이목정휴게소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축협과 농협에서 공동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 들립니다.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도 하고 이용도 합니다만은 많은사람들의 의견이 2개조합이 별도로 관리하니까 서로가 사람도 고용해야하고 또 이용면에서 적극성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내 것처럼 내물건을 팔려고 하는 것처럼 판촉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고 그래서 한 농협이든지, 축협이든지 한 농협이 맡아서 독단적인 운영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방금 주태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후에는 판매를 할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개인에게 위탁관리를 했을때 이익금의 몇%를 판매자에게 주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농축산물을 팔수 있겠다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쪽에서는 얼마나 연구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지원비를 투자한 평창군 담당실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좀더 검토를 해서 농협과 협조를 해서라도 개선방안을 조속하게 한번쯤 시도해 봤으며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보면 모든 시설투자나 특히 판매장에 관한 투자들을 보면 투자만 하고 지원만 해주고 사후관리는 안해요 관심도 안가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 지나다니면서 거기에 한번 들려 보셨습니까.

바쁘시다 보면 들릴 시간도 없겠지만 그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거기에 투자를 했다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주 들릴것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행정에서 적극성을 가져 주시고, 잘안되면 뭔가 방법을 찾고 연구해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時漢 :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韓榮一 : 김종영 의원 질문하세요.

○ 金鍾永 議員 : 김종영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낙운 의원께서 이목정 판매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재산권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군에 있습니다.

○ 金鍾永 議員 : 군에 있습니까.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것을 군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다.

○ 金鍾永 議員 : 위탁관리를 하는거라고요, 알겠습니다.

○ 議長 韓榮一 :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아무소리가 없음)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申大松 : 지역경제과장 신대송입니다.

주태원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정차요원 지원계획과 봉평시가지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단속요원 지원 내용입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요원은 4개읍면에 총 8명으로 군청을 포함해서 대화,진부,도암면에 각 2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군의 2명은 평창읍을 위주로 단속을 하면서 필요시에는 해당면에 파견근무를 하는한편, 읍면 근무요원은 소속면에서 주차질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탄, 방림, 봉평, 용평등 4개 읍면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정차 질서가 심각하게 문란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예산과 정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정차 질서 업무를 담당토록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차량의 등록대수는 매 증가하고 있

고 읍면소재지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등으로 주차질서가 날로 심각해 지면서 주정차단속 전담요원이 대부분 읍면에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95년도부터 병역제도가 개편되면서 방위복무자공익요원을 배치계획에 의거 주정차단속 요원으로 8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95년도 공익요원 배치 결과에 따라서 읍면별 실정에 알맞도록 별도로 주정차단속요원 확보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평면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읍 관내 보유 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총7,563대로 화물차 42%를 차지하고 있고, 승용차가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합차가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숫자는 93년 10월말과 비교하면 약21% 1,294대가 증가된 숫자입니다.

이렇게 자동차등록대수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서 공용 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따라서 군에서는 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지역에는 노상주차장 설치는 물론이고 폐천부지라든가 공공용지가 있는 평창 방림, 대화면 지역에는 노상에 주차장을 설치 하였습니다만은 일부 지역에서는 포장과 시설물등이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등으로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봉평면에 대해서는 주차장 시설이 시급한 실정인 기때문에 향후계획중인 창동1리 421-4번지의 택지개발사업계획지 부근 양묘장 부근에 500여평의 공용 주차장시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도읍정비가 완료 후에는 시가지 포장이 완료 하게되면 노상주차장도 설치하겠고, 따라서 분산 주차를 유도하는등 봉평시가지 주차난 해소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17일 주태원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미탄면 주차장부지 용도 변경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탄면 창리 609번지와 610번지 2,827㎡

는 92년도 2월에 복지회관의 부대시설인 피로연장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였습니다.

어제 산업과장이 답변드리대로 92년 12월 24일현재 피로연장이 위치한 창리608번지를 포함해서 609번지, 610번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어서,지금까지 농어촌발전특별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초 매입목적인 주차장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담당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해당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금년도 1월에 개정된 국토관리이용법 20조의 공공용지 입지 승인절차에 따르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건축물과 부대시설및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전용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인 만큼 92년도 12월달에 농수산부에서 발행된 농업진흥지역 지정

승인에 따른 후속조치에 의거 농림수산
부장관으로 부터 농업진흥지역해제결정
이 먼저 선행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
도 12월 중으로 공공용지승인신청을 제
외한후 농지관리부서로 하여금 신청서
를 첨부해서 강원도에 전달토록 하겠으
며 그 결정에 따라서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 議長 韓榮一 : 지역경제과소관 보충
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운 의원 발언하세요.

○ 金樂雲 議員 : 김낙운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미탄면주차장부지
농업진흥지역문제는 공공용지로 신청하
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능한 길이 있는대도
방치해 두셨는지 모르겠어요.

○ 地域經濟課長 申大松 : 사실상 관련
부서간에 일단 농지를 관리하고 있는
산업과에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규정만 의거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하는데
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장이
라든가 기타 공공시설 부대시설에 따른
타법에 저촉되는 것을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겠냐는 생각
이 듭니다.

○ 金樂雲 議員 : 어제 오늘까지 여러차
례에 걸쳐서 같은 산하의 공무원들이 서
로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않으므로 인해
서 행정의 마비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에도 느꼈던 부분이지만 왜 이
렇게 한 산하에 같이 몸담고 일하시는
분들이 협조가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나온애기인줄 알
고 있는데 이렇게 협조가 안되어 해결을
못했다는것은 누가 봐도 우수한 일입니
다.

길이 있으니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申大松 : 예 알겠습니
다.

○ 議長 韓榮一 : 이치욱 의원 발언하세

요.

○ 李致玉 議員 : 이치옥 의원입니다. 미탄 피로연장 부지및 주차장부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말씀 드려야 했는데, 과장님께서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 농수산부에 해제신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산업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지금까지 해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던가, 또는 보고를 한적이 몇번이나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申大松 : 그것은 제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산업과에서는 일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44조에 의하면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같은것은 행위제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관리하는 산업과에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준용만 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제외시킨다는 것만 생각을 했고, 또 국토이용관리법이 금년도 1월 1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부서와 우연찮게 결여되지 않았냐하는 그런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주차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李致玉 議員 : 좋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설명하는 말미에 어쨌든지 간에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 문제가 결되는거 아닙니까.

○ 地域經濟課長 申大松 : 예 그렇습니다.

○ 李致玉 議員 : 앞에서 말씀드린것은 어떤 절차고, 최종확정은 본군에서 요청을 해서 농수산부장관이 승인을 했을때만이 미탄면 공동주차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申大松 : 그래서 제가 지침을 보완을 하고 확정을 짓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 농수산부 농지과에 전화를 해서 강기석 사무관이란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정을 보고드렸더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도를 경유해서 진

단을 하게 되면은 협의하는데 승인을 해주겠다는 구두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시회의가 끝나게 되면 공공용지입지 승인 신청에 대한 서류를 즉각 작성을 해서 건설과와 산업과와 협조를 해서 도를 경유하여 농수산부에 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李致玉 議員 : 이말씀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만,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도 무관하다는 본의원의 생각에서 말씀을 올리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탄면과 또는 본청을 감사할 할때 심도 있는 질문을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공무원이 이런 큰실수를 했는가를 가려내서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한달두달 1년이라도 우리 평창군민이나 미탄면민이 보았을때는 사실 직무 유기인데 어떻게 3년정도나 방치해 두는지, 해당 미탄면에서 이것을 해지해 달라고 평창군청 해당과에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된다고 회신을 한번 하고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申大松 : 국토이용관리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불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致玉 議員 : 알겠습니다.

○ 議長 韓榮一 : 보충질문 하실 의원안 계십니까?

주태원의원 발언하세요.

○ 朱泰元 議員 : 그문제는 말이죠, 참 답답한데가 상당히 많아요, 왜 많은가 하면, 한사람의 군수 산하에 부치간 협조가 전혀 안되어 답변도 상당히 애매한 답변이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일반 주민들이 농지를 절대농지에 들어가 있는 농지를 형질 변경을 했다고 하면, 전 날리가 나죠, 원상회복을 해라, 고발이 되어 벌금을 무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죠. 우리 관내 주민들 가운데도, 힘없는 주민은 조금 잘못하면 엄청난 문제가 되어 벌집 쑤셔놓은것처럼 되고, 이행정당국이 스스로 잘못해 놓은것은 그냥 묵인 되어 몇년씩 흘러 가고, 차라리 법이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이 낫지, 법이란 것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해요.

○ 議長 韓榮一 : 질문중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문제는 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닌것 같고 책임소지에 대한 추궁은 행정사무감사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무소리가 없음)

지역경제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의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한후 4시30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1分 停會)

(16時 35分 續開)

○ 議長 韓榮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축산과장 정의수입니다.

주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목장 및 협업체육성시행과정에서 농가 선정을 위한 홍보와 사업장 선정 과정에서 축협의 관련 내용과 목장의 진입도로 사업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우산업의 국제경쟁력확보를 하여 전원목장을 육성하는 계획으로 정부가 93년 총 700억원의 축산발전기금을 본사업에 투자하기로 확정하고 전국적으로 사업희망자를 신청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본사업의 많은 농가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93년 3월 5일부터 15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읍면을 순회하며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시책설명회를 가졌으며, 특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한우영농조합법 육성을 위하여 '93년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재차 읍면을 순회하며 법인설립준비절차 과정부터

본 한우 영농조합법인의 향후 운영대책 지도를 실시한바 농가 7개소 한우영농 조합법인 2개소, 축협등 총 10개소를 신설하게되었습니다.

본 사업실시에 의하면 본인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후 축협으로 부터 정부지원 자금신청에 해당하는 담보 능력및 기존의 용자금 대출잔액증명과 향후 자금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축협의 의견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토록 되어있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사업신청 농가가 축협으로부터 1건서류를 되돌려 받은 다음에 군에 제출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농가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축협이 일괄하여 군에 보내주도록 협의하고 군단위에서는 신청서 1건서류내용과 현지확인 완료후에 도지사에 전달하여 중앙으로부터 신청한 농가의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본사업은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지원사업으로서 목장의 기반시설로는 진입도로 개보수, 초지내의 목도시설 용수개발, 전력인입사업등이 포함되고

사육시설로는 축사, 창고, 싸이로등을 시설하고, 조사로 생산시설로서는 초지 조성과 기성초지 보완 각종 장비등을 구입하는 내용과 기타 분뇨처리시설과 농업용 차량등 총체적인 사업내용중 본인이 필요하여 선택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계획이며, 목장의 진입도로 개보수사업은 목초지내의 소가 다니는 목로와는 구분되는 사업으로써 목장의 전업화를 위해서는 마을 안길에서부터 목장내의 축사또는 관리자까지 진입하는 도로가 대부분이 협소하고 비포장 상태로서 차량이용의 애로가 많은 실정이므로 본사업에서 노폭 4m내외를 기준하여 지형에 따라서 포장또는 사리부설로 시행하고 있으며 재원별 부담비율은 세부사업별로 각기 다릅니다만은 진입도로 개보수사업의 경우에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 50%, 용자 20% , 지방비보조 20%를 도비.군비 각각 10%씩 부담하고 자부담 10%의 비율로 사업비 지원계획이 확정 되어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절차과정에서 사업신청 농

가가 축협이 사업장 적격 심사과정을 거친다음 군수에게 제출하는 절차로 인하여 축협의 주관적인 의사가 감지될 우려가 있고, 농가의 불편의 예상됨을 감안하여 94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축산분야 축정별 경쟁력제고 사업 대상자 선정은 축산분야 유관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축정별 농가선정협의회에서 실무 심사를 거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축산분과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가별 시행 과정에서 미흡한점이나,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보완발전시킴과 동시에 농가단위 사업 시행의 지도확인을 철저히 하여 사업시행후 성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축산농가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 및 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중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대상은 소 10두이상과 돼지 50두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서 94년 2월말 현재 일제히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47개소로 조사 되었습니다.

대상농가중 금년말까지 137개소에 분뇨처리시설을 설치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10개소는 95년도에 중앙단위에서 지원하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설치완료할 계획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가축사육규모는 수시가변성이 있으므로 매년 농가별 사육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설치대상기준에 포함되는 농가가 발생시는 추가 설치토록 지도할 계획이며 기설치된 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매분기 1회이상 대상농가를 방문지도하여 저장된 분뇨의 적정처리와 누수방지 및 목장주변의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韓榮一 :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원의원 발언하세요.

○ 朱泰元 議員 : 과장님 설명하는 가운데

데 한우 경쟁력사업에서 본의원이 지적한것은 진입로 보수만이 아니고 목도시설을 한다라고 신청을 하여 국도비지원을 받아 기존 목도가 시설이 되어 있는데다가 100m정도 레미콘한차로 발라 놓은데가 있습니다.

보셨지요? 그것이 초지내에 있는 목도라는것은 소가 그 길로 다니면서 일정한 초지위에 풀을 뜯어 먹기 위한 것이 목도인데, 그것을 자동차길처럼 닦을 이유도 없는거고, 말그대로 소가 다닐수 있는 길이요, 그런데 국도비 지원된다고 그것을 타먹기 위해서 시멘트로 발라놓고 이것을 했다라는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그 사업장은 제가 죄송하지만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말씀하는 개념으로 보아서 포장을 했다면 사업비가 투자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이외에 자기 부담도 포함할 사항인데, 초지내에 소가 다니고, 사람

이 관리하기 위해서 다니는 길이라면 굳이 포장을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고,

다만 마을 안길에서부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당해 목장의 축사또는 관리사, 창고까지 진입도로는 포장을 해도 되지만 목도까지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 朱泰元議員 : 그러면 관리를 안해서가지고 그사람이 목도에 포장을 하느냐말이에요.

○ 畜産課長 鄭義秀 : 그사항은 즉시 현지 확인을 하고 목도에 포장을 해봐야..

○ 朱泰元 議員 : 포장을 다하지도 않고 일부 100m정도 하고 또 목도는 한우경쟁력사업이 이루어지기전에 이미 수년전에 이루어져서 잡초도 많이 나 있고, 이런데를 했더라란 말입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죄송합니다만 목장의 축사, 관리사로부터 목초지내로 다니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朱泰元議員 : 예

○ 畜産課長 鄭義秀 : 그러면 그분야에

대해서는 자력으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정부지원사업에는 굳이 이사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 朱泰元 議員: 과장님이 지난번에 읍면순회때에 현지확인차 간다고 하니 자료를 주신중에 목도에 대한 지원금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한것이지 자력으로 한거야 제가 어떻게 간섭을 합니까?

과장님이 제출하여주신 자료안에 목도에 대한 지원금이 나갔어요.
됐습니다.

○ 議長 韓榮一 : 김낙운 의원 발언 하세요.

○ 金樂雲 議員 : 김낙운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한우경쟁력제고사업 대상자 선발은 한우를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지요.

몇두 이상이라야 됩니까.

한마리라도 있으면 되는 겁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분명히 말씀드리

겠습니다.

10두이상 기르고 있는 사람이 향후 30두 이상의 규모로 전업화 하고자 사업계획을 제출한 농가에 종합지원한 사업입니다.

○ 金樂雲 議員: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韓榮一 :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아무소리가 없음)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李基椿 : 산림과장 이기춘입니다.

곽문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솔잎혹파리 방제사업과 벌채목 허가에 대하여 방제 실적과 효과, 소생불능피해목에 대한 향후 벌채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산림현황과 피해상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산림면적은 총 123,850ha입니다.

그중에서 공사유림이 53,737ha고 그중에서 소나무 면적이 17,092ha가 되겠습니다.

그면적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면적의 32%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병충해 감염면적은 11,848h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나무면적 17,000ha내에서 64%가 병해충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피해상태로 보면 심지역이 4,326ha 37%가 심지역이 되겠습니다.

중지역이 2,717ha, 경지역 4,805ha가 되겠습니다.

각각 보면 심지역이 37%, 중지역 23%, 경지역 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전체의 산림축적은 ha당 평균 44 m³ 인데, 강원도의 ha당 63m³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 ha당 산림축적은 50m³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가 전국적으로 평균으로 봐서 임상이 좋은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간주사가 2,500ha, 항공엽면시비 1,500ha, 피해목벌채 965ha, 지면약제살포 60ha 총 5,025ha에 10억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본사업에 대한 수간주사 효과는 90%이상 소생이 되어 가고 있으며,

항공엽면시비는 혹파리피해로 수세가 약한 임분에 영향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실시 하고 있으며, 솔잎이 파랗게 자라는 것으로 보아 효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면약제는 지금하고 있는데, 11월 하순 정부터 12월 초순경에 실시하는것이 시기적으로 적기이며 그 효과는 살충율 80%이상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피해목벌채는 965ha 대상지는 결정 통지하여 80% 벌채율을 보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목벌채사업은 솔잎혹파리 피해 심 이상지역으로 4,326ha중 피해 극심및 소생가망이 없는 임지에 대하여

피해목 벌채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년차별 피해목 벌채계획은 94년도에 965ha, 95년 1,350ha, 95년도 이후 2,011ha를 벌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 議長 韓榮一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안계시면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洪基杓 : 건설과장 홍기표입니다.

먼저 주태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천관리 단속요원 증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천 감시원은 하천법이나 청원경찰법의 규정에 따라 임명하여 하천의 불법행위 단속과 하천골재 반출등 하천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하천은 지방하천 1개소에 47km 준용하천 16개소에 242km, 총 17개소에 289km가 되겠습니다.

하천감시원은 원칙적으로 하천연장 10km에 1명씩을 배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총 29명이 필요로 하며, 지금은 12명이 있어 17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95년도부터는 공익근무 요원으로 충원할 계획이며, 이인력으로 불법행위나, 오염방지등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95년도에는 하천오염방지에 공익근무요원이 10명 배정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낙운 의원께서 질의하신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94년 11월 3일 평창군 대회의실에서 설명회시 언급한바와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영동고속도로 4차선확장 계획에 따라서 소규모 취락이나 간이휴게소등 평면교차가 불가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감안해서 전 노선내에 시설을 재검

토 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실시설계
단과 우리군과의 연결체계를 확립하여
주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요청한 내용은 도면과 아울러서 설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도면과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팀이 우리군에 내군할시
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韓榮一 :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운의원 발언하세요.

○ 金樂雲 議員 : 김낙운 의원입니다.

영동고속도로 4차선 문제는 모든 사람들
이 큰 기대에 지금 시작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가지 부대시설로 인한 주민들
의 불편사항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설명
회를 통해서 많이 도출되었고,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손댈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전구간에 대한 전체노선도를 하나 만들
어서 지역에 필요한 구간이나 시설물을
지역주민들과 협조를 해서 상세하게 만
들어서 비치를 하고 언제라도 문제가 있
는 것은 개선하고 또 도로공사에 협조해
나갈수 있는 체계화되는 협조가 이루어
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 의원님들도 힘
을 쓰겠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실시설계가 완결
되기 전에 실시설계에 대한 설명회를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다 하더라
도 또 누락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완결되
기전에 실시설계에 대한 설명회를 꼭 개
최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와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洪基杓 : 알겠습니다.

○ 議長 韓榮一 :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아무소리가 없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金敏洙: 도시과장 김민수입니다.

먼저 주태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봉평도시계획 일부변경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평도시계획은 74년 11월 20일 최초로 결정고시된후 77년9월 26일자로 재정비 결정고시되어 현재까지 1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봉평도시계획은 효석공원조성에 따른 가로망의 정비, 도로망 각각등의 일부조정, 용도지역의 변경요구, 도시그린공원문제등 재정비 요인이 발생되므로써 도시계획변경이 시급하여 재정비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군의 재정형편상 재정비에 따른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늦어지고 있습니다.

변경을 위한 용역비의 예산이 95년에 확보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곽문춘 의원께서 송정택지조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현황과

주차장 부족에 따른 사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부터 계획하여 금년도 6월 30일까지 30,095평의 택지조성 공사와 조정공사, 오수처리공사, 전기공사등을 완료하였고,

지적공사에서 분할 확정측량과 한전에서 배전시설이 10월 31일까지 완료되므로써 공사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택지조성에 투자된 사업비는 총 50억 3,2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양실적을 말씀드리면,

필지수로는 총 237필지중 119필지가 분양되어 50%, 면적상으로는 총 75,100㎡ 중 49647㎡가 분양되어 66%, 금액상으로는 총 82억 6,800만원중 47억6,000만원이 분양계약되어 5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미분양택지는 단독주택용지 108필지와 근린생활용지 10필지등 모두 118필지로서 현재도 계속 분양문의와 분양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특히 95년 진부우회도로 개설공사 시행에 따른 주택철거로 단독주택지의 분양이 증가될 전망에 있으며,

95년 11월 입주예정인 세경아파트 건립과 단독주택건립 증가에 따라서 그린생활용지도 대다수 분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분양 홍보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조속히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는 조성 당시 주차장 2필지 622㎡를 확보하여 시공하였으나, 택지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지선도로 협소로 인하여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여론에 따라 녹지로 조성된 400㎡와 단독주택지로 조성된 택지중 2필지를 선정하여 주차장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동 주택지의 주차장은 아파트단지내에서 수용이 가능하고 현재 건축중인 단독주택도 자체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축되는 단독주택지에 대하여도 자체 주차장을 확보토록 지도하여 주차장 부족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영일 의장님께서 평창상수도 보수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과장을 포함한 실무자들이 수도업무를 처음 다루고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수도업무를 맡으면서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축구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과장을 포함한 실무자들이 더욱 연구하여 앞으로 추진하게 될 봉평, 진부,도암상수도 확장공사에 반영하여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일 먼저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여과기 설치와 관련하여 당초 공사시 침전기 설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것에 대하여는 모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기술성이 결여된 행정의 미숙이며 특별한 이유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밀폐식 자동여과기가 표류수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안에 대하여는 평창상수도의 경우 복류수로 설계 시공되었으나 그동안 수차례 말씀드린바와 같이 표층의 여과층 부족과 홍수시의 세굴등으로 탁도가 높은 원수가 막바로 유입되므로 자정능력이 저하된 것이라고 보며, 여과층의 보완 및 세굴방지를 위해서 95년도 상반기에 취수보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중에 있습니다. 시설당시 취수보 설치문제를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업무의 미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원수의 탁도가 높을때는 과도한 탁질 부하가 발생되므로 여과사의 탁질오염이 되기 때문에 수질과 경제성이 문제가 된다는 사안에 대하여 평창상수도 원수는 홍수시의 탁도가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시 1급수 기준을 유지하므로 탁질에 의한 여과사의 오염이 쉽게 발생되지 않아 양호한 수질로 유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여과사의 교체는 2~3년마다 교체하게 되는바, 평창상수도 여과

기는 금년에 가동 시작되어 아직까지 가동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네번째로 여과기의 점검에 대하여는 본 여과기는 우리군 관내 주진 농공단지내의 거성개발에서 제작 설치하였으며 금년도 홍수이후에 거성개발에 요청하여 12회의 점검을 실시 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은 없었으며, 수자원공사의 기술 점검도 받은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시 점검을 요청하여 양호한 수질의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고속응집 침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원수의 수질변화와 유량의 변화폭이 큰 지역에는 고속응집 침전기의 효율이 저하된다는 사안에 대하여는 앞서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복류수를 취수하는 시설로서 취수보설치로 인한 여과층이 보완되면 큰폭의 수질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하절기의 스컴 및 이끼가 발생하고 트리할로메탄의 농도가 높을 우려

가 있다는 사안에 대하여는 평창상수도의 원수수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1PPM 이하로서 1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BOD 6이하인 3급수 이상에서 사용하는 전염소처리가 필요없으므로 트리할로메탄의 발생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저수지나 효소등 오염이 많은 원소에서 발생하는 스킴및 이끼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침전 슬러지 또한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균및 대장균을 살균하기 위한 수도전에서 0.2PPM정도 잔류 염소만 남도록 염소를 투입하므로 음용수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고속침전기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숙련된 기술과 수질검사와 능력을 갖춘 인력 보충과 수질검사기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한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보건직이나 화학직등의 전문인력이 상주 근무관리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진부상수도 사업계획 확정시에도 수질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지시된바 있습니다만은 인사관리상 당장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95년 조직진단 개편에 반영요구중에 있으며, 우선은 시설 시험가동시 상수도 근무자에게 작동방법및 약품투입에 대한 요령을 설치 회사 전문가로 하여금 교육케한바 있으며 본격적인 가동이전에 약품투입 가동방법등 관리전반에 대하여 현지 견학등을 통하여 기술을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일일검사 장비인 탁도계와 P.H 메타를 확보하여 상수도에 지급하였으며 11월 19일 즉 내일이 되겠습니다만은 봉평면 회의실에서 상수도 관리자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 기기 기술자를 초빙 기기사용법등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물 공급 및 수돗물에 대한 주민 불신감을 해소하고자 '95년 중에 초.중.고등학생및 부녀자를 초청 상수도 시설및 생산 과정을 견학 시키고자 하며, 취.정수장도

상시 개방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韓榮一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문춘 의원 질문하세요.

○ 郭文春 議員 : 곽문춘 의원입니다.
진부택지는 분양되지 않은 미필지에 대
해서 15%를 인상하였다는 얘를 들은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 都市課長 金敏洙 : 미분양 택지에 대
해서 택지분양을 하면은 6개월이상 재
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양도 저조할 뿐만 아니
라 지난 9월달에 재감정을 하여 필지당
15%, 전체적으로는 5%정도 택지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 郭文春 議員 :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분양이 되지 않는데.....,

○ 都市課長 金敏洙 : 그렇지는 않습니
다. 올리고 나서도 택지분양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부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공동택지같은 경우는 약 4천만원

정도 인상해서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 議長 韓榮一 : 다른분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아무소리가 없음)

조금전에 도시과장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의문스러운것은 제가
트리할로메탄 같은 시험방법을 우리 평
창에서도 음용수 시험기준에 할수 있느
냐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과량의
염소가 투입이 되었을경우는 엄청난 피
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있습니
다. 그것을 책임도 질수 없는 기능직한
테다가 "이렇게 해라" 할수는 없는 것입
니다.

그당시 유입되는 원수의 탁도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황산반토의 양이 정해
지는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탁도
검사를 해야되고 유입량을 검사해야하고
부유물질을 검사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
닉스 수질검사에 의해서 황산반토가 투
입되기 때문에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
닙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똑같은 결과

를 초래할 수 있고 잘못하면 엄청난 유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먼저도 제가 현장에 가보았습니다만은 가성소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험을 위해서 가성소다를 쓴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때가 될것 같으면 소다를 쓴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양이 많아 질것 같으면 물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 올수 있다, 간단히 얘기를 잘못할 것 같으면, 그가운데 청강수가 들어가든 양젯물이 가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얘기를 그냥 한다면,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충분히 이해가 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과학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똑같은 하자가 없고 또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기수 부군수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韓奇洙 : 부군수 한기수입니다.

김낙은 의원님께서 평창군이 지향하는 행정의 목표, 의지 사업은 무엇이며, 군행정의 뚜렷한 목적없이 즉흥적으로 계획했다가 어려우면 취소, 또는 추진하지 아니 하는등 무계획 무소신 행정으로 보인다는 지적과 관련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이 지향하는 행정목표는 화합속의 지방자치 균형과 활기찬 신농촌 육성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 균형적인 지역개발과,관광개발 문화와 체육진흥 행정의 목표를 두고 있으며, 군의 의지 사업은 국도정책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의 승인과 군 자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및 투자사업계획에 의한 지역현안사업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의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계속 사업과 연차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투자를 하고 있으나, 인건비의 과중 행정의 관리비의 증대,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의

군비부담 과중으로 군의 자체투자사업비가 빈약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질문하신 군청앞 택지개발사업은 본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난해 9월 10일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회의를 개최한 결과 토지주 44명중에 11명이 참석하여 사업추진을 11명이 찬성하였으나 도로등에 편입되는 감보율이 45~49%가 주민이 부담하게 되자 토지소유자들이 과중한 부담을 느껴 토지소유자가 반대에 따라 토지소유자 전원에게 공문으로 찬반 의견을 물어본결과 토지소유자 44명중 찬성은 2명밖에 없고 , 반대 12명 반송 12명 회신이 없는 사람이 18명등 대부분의 토지주가 반대하는것으로 나타나 계획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송정택지개발사업은 앞서 도시과장이 답변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금당계곡 군립공원 지정에 대하여는 지난해 1월1일 국토관

리이용관리법에 개정됨에 따라서 내용을 전면 수정하여 강원도에 군립공원지정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제출했던 바 금년 8월 31일 입지면적 8,315㎡중 96km가 보존임지이므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금당계곡을 개발하는 측면과 보전하는 측면중 어느것이 유익한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 10월21일 군정조정위원회회부 자문을 구하게 되었으나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참고하기 위하여 지난 90년도에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인제군 아미산을 확인한후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현지를 견학토록 했습니다. 갔다와서 보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군립공원지정에 현재까지 투자한 실적도 없고 관리하는 부서도 결정되지 않고 있어 관리도 못하는 실정이며,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게 되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던 당초 목적이 주민의 불편만 초래하게 되었다는 실무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군립공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로 하여 종합의견을 군정조정위원회에 재상정 토의하여 처리 결과를 의회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관광먹거리 판매장 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당초 8천만원을 확보하여 진부면 간평리 20,575㎡에 시설코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관리권 동의및 폐천부지의 용도폐지등 절차상의 문제로 금년내의 사업마무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충분한 기간을 두고 소정 절차를 밟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으로 인한 일부사업의 변경조정이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군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계상전에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투자사업의 신중한 검토등 앞으로 당초 계획을 수립할때,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수정을 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韓榮一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명기 군수님의 종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李明基 : 평창군수입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한영일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정전반에 걸쳐서 소상하고 심도있는 지적과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또한 지역과 군정을 걱정하는 충정어린 충고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방향을 설정하여 주신 이러한 내용은 제자신 스스로 자성하는 그러한 계기와 함께 이래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다짐을 갖게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모든 질문내용은 군민의 여망을 모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지역의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걱정하는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질문 항목항목마다 우리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였고, 방금 부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직접 답변을 했다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시책에 반영할것은 반영하고 아울러서 우리 공직자의 자세를 쇄신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저희가 이 자리에 서서 답변하고자 하는 것은 각항목에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라,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저의 기본적인 사고 또는 소신 그리고 군정에 대한 포괄적인 방향으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어제, 오늘 이틀동안 질문하신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군정의 여러가지 전반적인 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미흡했고, 또 부분적으로 차질이 생겼고, 진행이 부진되었다, 이것을 시정하거나 촉구하는 내용이 그하나입니다.

두번째는 수많은 사업을 벌려 놓았는데

이 방대한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가,

세번째는 전반적으로 노후되고 있는 상수도, 또는 쓰레기장 이와 같은 생활시설의 해결을 어떻게 할것이나, 또한 산업기반조성등 새로운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우 고민스러운 사안으로 안고 있는 것입니다.

김낙운 의원께서 군수에게 직접답변하여 달라는 내용도 이 세가지 범위중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답변은 김낙운의원께서 질문한 내용도 포괄해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여러가지 미흡한점 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의 선정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에 대한 조사와 우선 순위를 선정해야 되겠다, 그 추진의 일환으로 이미 제가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군정에 이미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소규모사업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주민불편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군수가 나가거나, 도에서 나오거나, 특히 여기 의원님들이 제시지만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 나가시겠지만 주민들이 시도때도 없이 건의하고 있고 이건의는 건의의 빈도나, 이러한 중요도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사업이 책정됨으로써 건의만 하면, 목소리만 키우면, 해결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관행이 없지 않았고, 이것이 바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군정의 소신도 없고, 아무렇게나 즉흥적인 사업을 벌리고 있다, 라고 하는 큰 이유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1억정도의 미만사업에 대해서는 읍면, 또는 다른 여론을 통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위

협성, 시급성, 편리성, 수혜도 이러한 여러가지 항목에 걸친 기준을 따라서 순위를 정해 이것을 주민에게 공포를 해서 사업의 책정은 가용예산의 범위내에서 순위대로 엄격히 지켜나가는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지적하신중에 우선 사업선정을 신중히 하고 일관성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업선정이 되면은 엄격한 투자 심사를 해야 되겠다, 과연 이사업을 하므로써 얼마나 성과가 있으며, 당장 주민에게 돌아가는것이 무엇이나, 하는 여러가지 문제,재원 조달은 가능한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사하는 그것을 제도 하고, 그다음 일단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기술지도와 감독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이 시작되면 반드시 성과를 올린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제,오늘 있는 문제도 아니지만, 이러한 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언제나 우리 행정의 하는 일이 불신의 요소가 된다고 하는것이 저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많은 일을 벌리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 할것인가, 군정의 재정이라는 것은 뻔한것인데 어떻게 조달해서 마무리 할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벌여 놓고 사업은 평창문화예술회관, 봉평소도읍가꾸기, 달동네정비사업, 횡계교가설, 횡계진입로, 대화체육관, 도암면 청사, 공설묘지 쓰레기장등 지적한바와 같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14억정도되고 그동안 투자한것이 63억, 앞으로 151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예술회관이라든가, 대화체육관, 횡계교가설은 착수의 동기가 국도비의 일부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순수한 군비로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은 계속 국도비 또는 특별교부세에 의존해서 추진하는데

하나 분명한것은 추진하다 중단하는 일이 없고, 기간은 늦게 갖더라도 매년 해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문화예술회관도 전체가 64억입니다. 이중에서 13억이 예산편성되어 설계하는데 1억5천만원 들고, 11억5천만원은 부득이 내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예산은 지금 현재 도비로 요청해 놓고 있는것이 4억정도 받은것이 있고, 문예진흥기금을 문화예술진흥원에 5억정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합하면 21정도의 공사는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결국 이것은 안하는것이 아니고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봉평도읍정비도 만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내년에는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약 20억이란 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확정되는대로 그것과 다음 일반시책이 이것을 집중투자해서 한가지 사업

이라도 마무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또 부분적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를 최대한 투자해서 내년도 마무리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달동네 정비사업도 4억들어갔습니다만은 여기에도 정부시책사업을 그지역에 투입시켜서 일부 보조 지원을 넣고 필요한 최소한 군비를 투입해서 마무리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횡계교가설, 횡계진입로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횡계교는 상당히 위험요소가 내포된 다리입니다. 그리고 진입로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금년예산 도비를 3억을 받아놓고 있고, 내년도 1억4천만원정도만 되면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다만 횡계교 가설과 함께 추진해야 될것은 횡계국민학교로 들어가는 도로를 하천쪽으로 도시계획도로로 같이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에 10억정도 들어갑니다. 일반 보상은 다 마쳤습니다만은, 교량가설은 5억6천만원정도 드는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다각도로 도에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시켜서 추진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대화 체육관 역시 지원을 근거로 한것이 기 때문에 이것도 보조재원을 주축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도암면 청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그 땅의 값을 다시 재산조성에 투입한다는 요건으로 재원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에도 16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듭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시행하면서 진입로 개설을 내년도에 착수 할려고 합니다. 그외에도 지적해 주시고 문제를 제기해 주신 사업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큰것이 이런방향으로 추진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 국고, 도비지원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과 또는 다각면의 절충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큰 사업들에 대해서 군비를 얼마나 투입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명목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투입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내년도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하지 못하는것을 여기에서 거짓말 할수도 없는거고, 할 수있는 방법은 이방법 밖에 없다는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노후된 상수도 시설이라든가 쓰레기장, 다시 말씀드리어서 농업기반조성이라든가 새로이 할 사업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내년도의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답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우선 95년도에 군정에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은 성수대교사건을 계기로 해서 관내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여부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극히 불안정하고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사업에 투자되어야하고,

또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를 새로 확포장 하는 노선에 노후교량이 라든가 구조물이 있으면 우선 그것부터 해결해서 안전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속에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소규모 5천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지방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의 재정운영은 확실한 세입만 잡아서 도중에 예산세입이 부족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세입예산 책정에 신중을 기하겠고, 아울러서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일반경상비 이런것은 최대한으로 절약운영해서 알뜰하게 꾸려나가므로써 어려운 재정을 헤쳐나가야 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벌여놓은 사업에 대해서는 중

단합이 없이 계속추진 하거나 마무리 하는데 중점 투자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억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읍.면 청사의 중축등 공무원이 어려움을 참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년도에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앞으로의 짜임새있는 지역개발계획에 중추가 되는 도시계획 용역사업을 한군데 하기에는 약 2억정도 예산이 들어 갑니다.

당장 급한것이 봉평도시계획, 도암도시계획 2가지가 급합니다

이문제도 지금 해결을 해야할 과제로서는 안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농업관계 관련 시책에 대해서는 농어촌발전시책에 의해서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국도비지원 용자, 또는 군비를 부담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부담해서 정부가 추진

하는 농업관련 시책들이 현장에서 성공을 거둘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여기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려하거나 농어민 스스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보조중심에서 용자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이 가지고 있는 소득중대 특별기금에 일반예산을 늘려서 하고 싶은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무이자내지는 3%의 저렴한 예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농촌살리기 보다는 스스로 하고자 하는 사람, 자기가 투자하고 앞으로 갚아야 할 마음의 담보를 넣는 그러한 시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군이 갖고 있는 여건은 관광에 대해서는 관광에 대한 사람을 어떻게 끌어들여 오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의 신경을 안써도 다 찾아 올수 있습니다.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종합휴양지라든가 여러가지 계곡, 산천, 이런것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찾아오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2백만정도가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한사람이 1만원만 쓴다고 하더라도 2백억 정도는 군민의 소득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군민에게 2백억 소득이 관광으로 해서 되느냐, 하는것이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홍보보다는 관광객이 들어온 사람한테 우리가 무엇으로 돈을 벌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현재 저희 실무진에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들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국수라든가 감자로 만든요리, 갈비 이런 평창군만이 갖는 유명한 식품들을 군이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라든가, 또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새로운 식품을 개발해 나가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그렇다 해서 관에서 어떠한 음식점을 차려 선을 보인든지 그런방향이 아

니라, 현재에 하고 있는 주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부여해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시책을 연구해서 우리한테 들어 오는 돈을, 그러한 관광객을 놓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방향으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여름철에 고속도로나, 국도 이런데에 교통이 체증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회도로를 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것이 상례였으나, 이것은 우회도로를 내달라 하기 이전에 이러한 지체된 관광객들을 위해서 무엇을 팔아야 될것이나, 하는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인근 경기도에 가더라도 차가 지체되면 오징어, 옥수수를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팝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은 길을 들러달라는 데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농민소득과는 거리가 먼 착상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득을 올리느냐 하는 문제는 차제하더라도, 이러한 국민 한사람, 한사람들이 자기 소득에 대한 노력과 열정을 가질때에 개개인의 소득이 증대 될수 있고, 그러한 것이 행정적으로 지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어제, 오늘 질문하신 각 과장들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셨겠지만 전체적인 기조라든가, 방향은 이런방향으로 균정을 이끌고 나가겠다고 하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한영일 의장님께서 공무원의식개혁에 대해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평창군 공무원들은 약 85%정도가 이땅에서 나서 이땅에서 컸고, 앞으로 이땅에서 살 사람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시행되게 되면 이러한 소망스러운 공무원자원은 이 향토적인 자원이 상당히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시책을 지적받고, 여러가지 잘못된 점을 충고로 받는 이후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공무원의 생각과 행태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예산이 많고, 아무리 자원이 많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사고가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것이 계획한대로 나갈수 없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갖는 여러가지 복지부동이라는 문제, 구태의연한 행태, 권위주의 무사안일, 이런등등은 공통적으로 지적 받는 그런 우리 공무원의 부끄러운 단면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공무원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그리고 향토애를 가지고 노력하는 공무원도 참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큰기대를 갖고 부임초에 우리가 의식개혁, 이런 포괄적인 얘기만 갖고 의식개혁을 하자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의식 개혁을 해 나갈것인가 하는 문제의 방법으로서, 첫째는 우리 공무원이 친절해야 된다,

둘째는 민원서류 처리를 되는 방법으로
긍정적으로 해주어라,
두가지를 내걸었습니다.
친절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교육
도 하고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합니다.
민원서류처리 문제도 군수인 제가 매
마다 매일아침 처리 기한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접수해서 즉시 처리해 주었느냐
하는 문제를 아침마다 체크하고 있습니
다.
그것이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는 모
르지만, 성과 여부에 관계없이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거의 인.허가 민원등 전부가 우리지역
주민들이 농지전용을 하거나 산림훼손
을 허가하거나, 건축허가, 영업허가 전
부가 우리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
다.
이러한 민원을 우리 공무원들이 서랍에
넣고 질질 끌고 있고, 안해주고 하면은
민원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그차원보
다는 우리경제의 침체를 가지고 옵니다.

바로 우리가 민원서류를 하나하나 빨리
해주고 긍정적으로 해주는것이 우리 공
무원이 할수 있는 최대의 지역경제활성
화 입니다.

이런면에서 앞으로도 공무원이 친절하고
민원을 철저하게 바랍직하게 처리하는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 비리
문제, 공사감독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
해서도 세심한 지도와 창안 시책을 발굴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
다.

저희 답변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또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하기 그지 없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 공무원들이 힘모아
우리지역이 보다 나은 지역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지적해 주신 여러가지 질문 사
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획적으로 책

거서 실천 여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워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 議長 韓榮一 : 이명기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질문과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
사를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11월 19일 11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47分 散會)

○ 出席議員

議長	韓榮一
副議長	金鍾永
議員	李致玉
議員	李相薰
議員	朴容泰
議員	朱泰元
議員	金樂雲
議員	郭文春

○ 出席公務員

郡 守	李明基
副 郡 守	韓琦洙
農村指導所長	劉載國
企劃室長	高昶植
文化公報室長	表福均
社會振興課長	權純喆
財務課長	李永德
社會課長	姜慶錫
環境保護課長	金學根
家庭福祉課長	朴靜子
畜産課長	鄭義秀
山林課長	李基椿

建設課長	洪基杓
民防衛課長	金昌吉
保健事業課長	任永彬
社會指導課長	全根鐸
技術普及課長	李宇炯

○ 議會事務課

事務課長	權赫昇
議事係長	咸京鎭

【 議 席 】

○ 議席表 (5 面에 실음)